

유럽의 세련된 매너, 21세기 신년음악회의 표준



지휘 | 페터 구트

2015 빈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 김은경

New Year's Concert



PROGRAM

요한 슈트라우스 2세 '트리치 트라치 폴카', '봄의 소리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주세페 베르디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중 '친구여, 고맙소', 엔니오 모리코네 '환상 속에서' 외

2015. 1. 20 (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티켓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문의 051-607-6058 초등학생이상관람가

01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5 JANUARY vol.277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01

2015
JANUARY
vol.277



Cover Story

빈-테를린 브라스퀸텟 첫 내한공연
만감습니타 부산시문화상 수상자 김명자 선생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국제시장'과 공간의 시대적 흐름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7회 정기연주회



지휘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Alexander Anissimov

2015 **신년음악회**

NEW YEAR'S CONCERT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7회 정기연주회



차이코프스키
P.I.Tchaikovsky

- 이탈리아 기상곡 작품45
Capriccio Italien op.45
-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35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 호두까기인형 모음곡 작품71a
Nutcracker Suite op.71a
- 환상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Fantasy Overture "Romeo and Juliet"



바이올린 김재원

2015. 1. 23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문 의 607-3111~3(부산시향) 607-3100(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리켓링크** www.ticketlink.co.kr (1588-7890)

서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2015 제10회 부산국제음악제 콘서트 시리즈

Busan Music Festival Concert Series "Favorite & Revisited"



백혜선 김수빈 이한나 수렌 바그라투니

1월 27일(화) 오후 7시30분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오프닝 콘서트-거장의 실내악 "Best of Best, 3B"

부산국제음악제 9년간의 연주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만을 엄선해서 피아니스트 백혜선, 바이올리니스트 김수빈, 비올라 이한나, 첼리스트 수렌 바그라투니가 들려주는 3B(바흐, 베토벤, 브람스)의 감동의 앙상블!

바흐/사쿠느 | 파르티타 2번 중
베토벤 | 피아노3중주 제5번 "유령"
브람스 | 피아노4중주 제1번 G단조

피 아 노 | 백혜선
바이올린 | 김수빈
비 올 라 | 이한나
첼 로 | 수렌 바그라투니



조엘 스미어노프 세르게이 바비안 채재일 임지영

1월 29일(목) 오후 7시 30분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국제음악제 신년음악회 "명품협주곡"

거장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바비안이 연주하는 피아노협주곡 중 최대의 걸작으로 꼽히는 프로코피에프 피아노협주곡 2번,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이 연주하는 베버의 클라리넷협주곡2번, 라이징 스타 임지영이 연주하는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4번의 감동과 함께 새해를 엿다.

베 토 벤 | 프롬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작품 43
모차르트 | 바이올린협주곡 제4번 D장조 K.218
베 버 | 클라리넷 협주곡 제2번 E플랫장조 작품 74
프로코피에프 | 피아노협주곡 제2번 G단조 작품 16

지 휘 | 조엘 스미어노프, BMF오케스트라
솔리스트 | 피아노 / 세르게이 바비안
클라리넷 / 채재일
바이올린 / 임지영



노부스콰르텟 윤홍천

1월 30일(금) 오후 7시 30분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노부스 콰르텟과 윤홍천

대한민국 실내악 역사를 다시 쓰는 현재 가장 Hot한 실내악 그룹 노부스 콰르텟과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는 차세대 피아니스트 윤홍천이 함께하는 무대!

드 볼 작 | 현악4중주 제12번 F장조 작품96 "아메리칸"
멘델스존 | 현악4중주 제6번 F단조 작품80
슈 만 | 피아노5중주 E플랫장조 작품 44

바이올린 | 김재영, 김영옥
비 올 라 | 이승원
첼 로 | 문영휘
피아노협연 | 윤홍천



필립 케인, 주희성, 고이치로 하라다, 김수빈, 김동욱

1월 31일(토) 오후 7시 30분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거장의 실내악 2 "Best of Best"

이보다 더 훌륭한 스타의 조합은 없다!!
드라마 <밀회>의 주제곡으로 사용된 드볼작의 피아노5중주와 차이코프스키 최고의 실내악 걸작인 현악6중주 "플로렌스의 추억"이 거장의 손끝에서 연주되다!

슈 베 르 트 | 3개의피아노모음곡 D946
드 볼 작 | 피아노5중주 A장조 작품 81
차이코프스키 | 현악6중주 D단조 작품 70 "플로렌스의 추억"

피 아 노 | 필립 케인, 주희성
바이올린 | 고이치로 하라다, 김수빈, 김동욱
비 올 라 | 조엘 스미어노프, 이한나
첼 로 | 정명화, 문영휘



정명화 김남윤 윤홍천 채재일 김경희

2월 2일(월) 오후 7시 30분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가족음악회

거장과 셋별영재들이 함께하는 온가족이 즐기는 가족음악회

슈베르트 | 소프라노와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바위 위의 목동"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첼로소나타 F단조 작품 6
쇼스타코비치 | 로망스
몬 티 | 차르다쉬
비 발 디 | 사계

첼 로 | 정명화
소프라노 | 김경희
클라리넷 | 채재일

바이올린 | 김남윤
피 아 노 | 윤홍천
김남윤과 바이올린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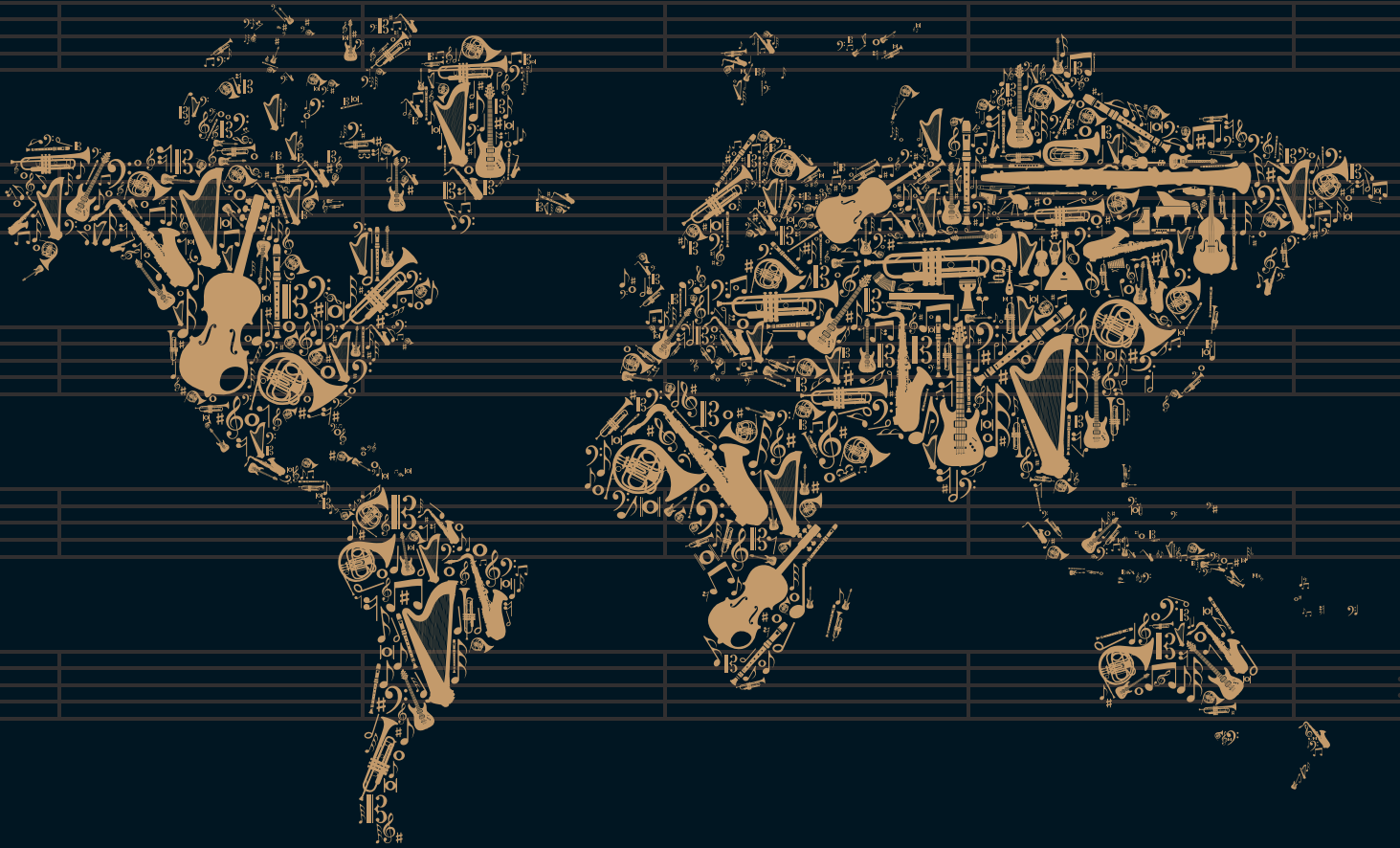
- 주 최 | (사)부산국제음악제 · 주관 : (사)부산국제음악제 운영위원회, 부산아트매니지먼트
- 후 원 | 부산광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BS 부산은행
- 입 장 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각 음악회 동일가격)
- 예 매 처 | 인터파크
- 단체할인 | 20%할인(20명 이상, 전화예매자) 문화회관 회원 10%할인
- 문 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051-740-5833 www.busanmusicfestival.com www.busanarts.com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오충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WCD WORLD CLASSIC DISCOVERY



가덕 신공항 건립 성공기원

2015 세계음악 디스커버리

1월 24일 [러시아] / 4월 25일 [프랑스] / 6월 13일 [아메리카대륙]
7월 25일 [독일] / 10월 24일 [오스트리아] / 12월 26일 [이탈리아]

토요일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술감독 : 오충근 연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후원 seun 세운철강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오중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WCD WORLD CLASSIC DISCOVERY

2015
WORLD
CLASSIC
DISCOVERY

마에스트로 **오중근**과

은 가족이 함께 떠나는

세계음악여행

가덕 신공항 건립 성공기원

세계디스커버리 음악



아름다운 클래식과 다이아몬드의 행운을 함께!

매회 공연시 추첨
굿모닝백이안과 - VIP 눈건강 검진권
고운세상김양제피부과 - 루메니스2 또는 BBL+레블라이트
에어부산 - 부산/김포 왕복 항공권
해운대 그랜드호텔 - 디너 식사권

1회~6회 모든 관람객 중 추첨
갤러리젬 - 1캐럿 다이아몬드
굿모닝백이안과 - VIP라식 또는 라섹시술권
고운세상김양제피부과 - 듀얼프락셀 또는 아이콘시술권

티켓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예매처 |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문의 | BSO 051-621-4577 www.bso21.com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후원 세운철강

후원 102 굿모닝백이안과

고운세상
김양제 피부과 의원

GALLERY Jem

HAEUNDAE GRAND HOTEL

부산시립무용단

2015
을미년



우리부산채 근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홍 경 희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무용단

2015. 1. 22(목) 19: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권 균일 5,000원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31~2 (www.koreanfolkdance.com)
부산시립예술단홍보마케팅부 607-3100

셔틀버스 무료 운행

대연 지하철 5번 출구 유엔로타리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출발시간 월~금 19:00(공연있는 날에 한 함)

C o n t e n t s

·
·

2015
JANUARY
vol.277



- 08 **신년사**
문화가 가진 혼과 힘이 부산시정의 동력_서병수
- 10 **커버스토리**
빈-베를린 브라스 콰텟 내한공연

Cultural Story

- 12 **공연 일정**
- 14 **부산문화회관 2015년**
- 26 **반갑습니다**
부산시 문화상 공연예술부문 수상자 김명자
- 28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호주의 크리스마스_최성모
- 32 **불멸의 거장_셰익스피어⑦**
로맨스의 세계_송홍한
- 34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국제시장'과 공간의 시대적 흐름_강기표
- 36 **그곳에 가면**
부산은행 금융역사관
- 38 **우리는 문화가족**
부산판소리동호회 소리두레
- 40 **테마가 있는 여행**
을숙도로 떠난 겨울여행

Boards Inside

- 45 **프리뷰**
- 50 **리뷰**
- 52 **프로그램 가이드**
- 63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4 **새로나온 음반**
- 65 **새로나온 책**
- 66 **부산문화회관路**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5년 1월호 통권 277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811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박성택 편집인 박원철 편집 백경옥 정복엽 발행일 2014년 12월 25일 인쇄처 호민디앤피 051 807 5100

시민의 상상력과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부산광역시장 서병수

희망찬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떠오릅니다.

올해는 양띠 중에서도 청양(靑羊)의 해입니다. 양은 본디 성질이 온순하고 무리를 지어 사는 순한 동물입니다. 양띠 해에 태어난 사람은 성실하고 다른 이와 잘 화합하며 이해심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는 청색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운까지 결합되어 부산시민들과 모든 가정, 나아가 부산 전체에 좋은 기운이 가득 넘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5년은 민선6기 부산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 첫 마음을 가슴에 품고 더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이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응하며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재를 키우고, 기술을 혁신하며, 문화적 매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화가 가진 혼과 힘이 부산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문화 복지 확대를 시민과 소통하고 통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도시의 경쟁력은 거대한 인프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시가 지닌 활력과 매력, 고유한 문화적 색채들이 세계인을 불러들이는 더 큰 경쟁력이 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감천동에 한국의 산토리니 '감천문화마을'을 조성하면서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영도대교 복원으로 원도심 문화관광벨트가 구축되었습니다. 문화·스토리 중심의 모범적 도시 재생 사례로 꼽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은 초·중·고교 지리·사회 교과서에 소개되기도 했고 세계대도시연합이 주최하는 '메트로폴리스 어워드 2014'에서 좋은 정책으로 인정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처럼 문화는 도시 재생과 창조경제의 주축입니다. 관광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10억원 당 15.5명으로 7.9명인 제조업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콘텐츠는 창조경제의 핵심 성장분야입니다. 부산은 그동안 영화와 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캐릭터 분야의 킬러 콘텐츠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때 오랜 생명력을 가지고 빛을 발합니다. 새해에는 생활문화 중심으로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동아리, 다양한 거리 공연 등을 통해 문화예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산시정과 문화예술계 뿐 아니라 모든 부산시민들이 각자의 상상력과 열정, 창조력을 발휘해서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새해에도 부산시립예술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을미년(乙未年) 새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과 화평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새해 아침에

부산광역시장 서병수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적인 브라스 연주자들 2015년 서막을 열다

빈-베를린 브라스 퀸텟 내한공연





세계 최고의 연주단체인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금관주자로 결성된 환상의 금관 5중주 ‘빈-베를린 브라스 퀸텟(Wien-Berlin Brass Quintet)’이 2015년 첫 기획 공연의 주인공으로 1월 17일 화려한 팡파레를 올린다.

1월 16일 개막하는 2015 서울국제음악제 개막 공연을 통해 국내 첫 내한 공연을 갖는 ‘빈-베를린 브라스 퀸텟’은 한국에서는 만나기 힘든 세계 정상급 금관앙상블팀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금관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과 함께 청중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빈-베를린 브라스 퀸텟’은 베를린 필하모닉오케스트라 트럼펫 수석인 Gabor Tarkovi와 부수석인 Guillaume Jehl,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튜바 수석인 Alexandervon Puttkamer와 호른 수석인 Thomas Jobstl,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트럼본 수석 Dietmar Kublbock 등 5명이 최고의 앙상블을 위해 의기투합,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2015년 2월 음반 출시를 앞두고 있는 ‘빈-베를린 브라스 퀸텟’은 꾸준히 일본투어를 진행, 일본 청중들과는 친숙하다.

5명의 연주자들은 솔로리스트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베를린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으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트럼페터 Gabor Tarkovi는 헝가리 음악가정에서 태어난 트럼펫주자이다. 2004년부터 베를린 필하모닉 트럼펫 솔로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Gabor Tarkovi는 앙상블

주자로 폭 넓은 활동을 펼쳤고 현재 ‘Austrian Brass Connection’ 멤버, Herbert von Karajan Orchestra Academy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베를린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수석 Guillaume Jehl은 Orchestre National Bordeaux Aquitaine, Orchestre National de France 부수석 및 Basle Symphony Orchestra, Orchestre National de France 트럼펫 수석을 역임하고 솔로리스트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5년 비엔나 Musikverein의 그레이트 홀에서 솔로로 데뷔한 비엔나 필하모닉 호른 수석 Thomas Jobstl은 Orchestra of the Vienna Volksoper 수석, Vienna State Opera Orchestra 부수석을 역임하고 솔로리스트로, Vienna Horn Ensemble, Viennahorns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비엔나 필하모닉 트럼본 수석 Dietmar Kublbock은 Vienna Symphony, Vienna State Opera Orchestra 수석을 역임하고 트럼본 솔로리스트로, 실내악 멤버로, Niversity of Music and Performing Arts in Vienna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베를린 필하모닉 튜바 수석 Alexander von Puttkamer는 Symphonic Wind Orchestras, Big Bands, Brass Festivals 솔로리스트로 협연 무대 등을 통해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으며 솔로앨범을 포함, 다수 음반에서 호른니스트로 참여해왔다.

이번 첫 부산연주회는 금관악기의 매력을 물신 느낄 수 있는 바흐의 류가와 말콤 아놀드의 브라스 퀸텟,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느 작품번호 50번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레퍼토리로 금관악기만의 웅장하고 현란한 연주를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선사한다.

1월 17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_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_ 부산문화회관(607-6057),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607-3100)

CULTURAL SCHEDULE

SUN MON T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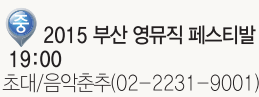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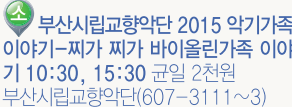
전시실
 3D 문화유산 답사전(아름다운 우리 국보)-대전시실
 1월 4일(목)-3월 1일(일)
 문의: 휴앤 마커스(010-5401-7516, 070-7617-4004), 대전시실(607-6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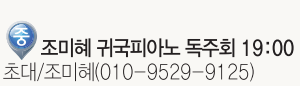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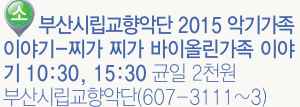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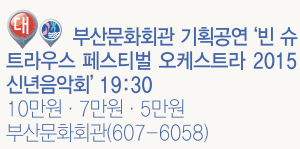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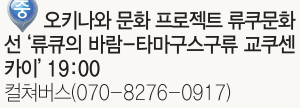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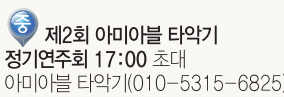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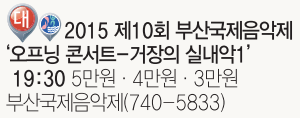
18


19

20























25


26

27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 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 을 click 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바랍니다.

WED	THU	FRI	SAT
	1	2	3  토요상설무대-재즈밴드 러브레터 16:00 무료(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2)
7	8	9	10  토요상설무대-해피양상블 16:00 무료(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2)
14  정명훈,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교보 노블리에 신년음악회 19:30 서울시향(02-720-3933)  2015 부산 영유직 페스티벌 19:00 초대 음악춘추(02-2231-9001)	15  2015 부산 영유직 페스티벌 19:00 초대 음악춘추(02-2231-9001)  부산시립교향악단2015 악기가족 이야기-뿌우 뿌우 나팔가족 이야기 10:30, 15: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6  루비셀 사랑나누기 자선모금 2015 신년음악회 19:30 초대 (주)루비셀(010-9172-5552)  2015 부산 영유직 페스티벌 19:00 초대 음악춘추(02-2231-9001)  부산시립교향악단2015 악기가족 이야기-뿌우 뿌우 나팔가족 이야기 10:30, 15: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7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빈-베를린 브라스 콰텟 내한공연' 15:00 3만원 · 2만원 · 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7)  토요상설무대-이크택견 16:00 무료(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2)
21	22  제1164회 MBC목요음악회 '행복한 남성들의 즐거운 합창' 19:30 1만원 · 5천원 (사)문화도시 네트워크(760-1494), 코랄하우스 남성축제합창단 (010-4183-2293)  부산시립무용단 2015 우리춤 산책 19:30 균일 5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23  부산시립교향악단 2015 신년 음악회 19:30 2만원 · 1만5천원 · 1만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남구문화원 오록도무용단 '낙화유수' 19:00 초대 남구오록도무용단(010-8503-4618)	24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음악 디스커버리-러시아' 11:00 3만원 · 2만원 · 1만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1-4577, 010-8508-8310)  갈멜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 갈멜합창단(010-8005-3587)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16:00 무료(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2)
28	29  2015 제10회 부산국제음악제 '신년음악회-명품협주곡의 세계' 19:30 5만원 · 4만원 · 3만원 부산국제음악제(740-5833)  미운아기오리 10:15, 11:20 키즈샘(02-6409-6593)	30  2015 제10회 부산국제음악제 '노부스파르렛과 피아니스트 윤흥천' 19:30 5만원 · 4만원 · 3만원 부산국제음악제(740-5833)	31  2015 제10회 부산국제음악제 '거장의 실내악 2' 19:30 5만원 · 4만원 · 3만원 부산국제음악제(740-5833)  U.K.O 오케스트라 피아노 협주곡의 밤 19:30 U.K.O(626-8084)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16:00 무료(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대극장	기획	1/17(토) 빈-베를린 브라스 퀸텟 초청공연 1/20(화) 빈 슈트라우스 페 스타벌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1/24(토) 세계음악 디스커버리			4/11(토) 송승환의 명작동 화,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4/25(토) 세계음악 디스커버리 4/30(목) KBS 교향악단	5/16(토) 어린이 창작음악 극 '두부와 콩나물'	6/13(토) 세계음악 디스커버리
	예술단	1/23(금) 교향(507회 정기)	2/12(목) 합창(특별)	3/10(화) 교향(508회 정기) 3/13(금) 합창(154회 정기) 3/26(목) 국악(177회 정기)	4/15(수) 교향(509회 정기) 4/16(목) 소년소녀(143회 정기)	5/14(목) 합창(가요합창음악회) 5/22(금) 교향(510회 정기) 5/23(토) 소년소녀(정기) 5/28(목~29(금) 무용(72회 정기)	6/4(목) 합창(155회 정기) 6/19(금) 교향(511회 정기)
중극장	기획						
	예술단		2/18(수) 국악 설맞이 국악 한마당	3/12(목)~13(금) 소년소녀(특별)	4/23(목) 국악 (178회 정기)	5/21(목) 국악 청소년 협연 의 밤 5/27(수) 국악 챔버오케스 트라 여운 유진박 오정해의 아리랑, 아! 아리랑	
소극장	기획			3/26(목) 중남미 음악의 밤			
	예술단	1/22(목)~23(금) 무용 우리춤산책			3/2(월)~8(일) 극단(정기) 3/11(수)~20(금) 무용 '춤추는 동화'		6/23(화) 무용 풍류11기
국제 회의장	1/12(월)~1/16(금) 시민무용교실						
지역(區) 문화회관 및 야외극장	1/15(목) 국립부산국악원 국악 '국립부산국 악원과 합동 신년 음악회'						6/11(목), 6/16(화), 6/18(목) 을숙도, 영도, 금정문화회관 무용(구문화회관 순 회공연) 6/23(화) 을숙도문화회관 국악(179회 정기)
순회 공연					4/17(금) 서울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이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25(토) 세계음악 디스카버리	8/11(화) UKO 오케스트라		10/2(금) 합창 10/5(월) UKO 오케스트라 10/24(토) 세계음악 디스카버리		12/4(금)~5(토) 오페라 라보엠 12/11(금)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12/17(목)~18(금) 송년음악회 12/26(토) 세계음악 디스카버리 12/31(목) 제야음악회
7/10(금) 교향(512회 정기) 7/14(화) 합창(써머 판타지) 7/16(목)~18(토)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 페스티벌	8/12(수) 국악(특별) 8/13(목) 소년소녀(특별)	9/17(목) 합창(156회 정기) 9/18(금) 교향(513회 정기) 9/19(토) 소년소녀(144회 정기)	10/16(금) 교향(514회 정기) 10/25(토) 부산청소년합창제 10/29(목)~30(금) 부산합창제	11/13(금) 국악(181회 정기) 11/6(금) 교향 오페라 N 콘서트 11/19(목)~20(금) 무용(73회 정기) 11/24(화) 합창(157회 정기) 11/27(목) 교향(515회 정기)	12/15(화)~16(수) 무용(송년) 12/17(목)~18(금) 합창(송년) 12/23(수) 국악(182회 정기)
		9/9(수)~12(토) 제2회 부산 챔버 뮤직 페스티벌			
7/8(수)~15(수) 극단(특별) 7/17(금) 국악(180회 정기)	8/20(목) 무용(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9/18(금) 국악(3인 3색음악회)			
			10/8(목)~11(일) 극단(특별)		12/3(목) 무용(풍류12기) 12/15(화)~18(금) 극단(정기)
7/27(월)~7/31(금) 시민무용교실					
7/23(목)~24(금) 무용 (2015 여름마당춤 축제)					12/20(일) 국립부산국악원 무용특별(2015 춤 으로 갈무리하다) 12/21(월)~12/24(목) 해운대문화회관 무용(특별)



KBS교양악단



국악챔버 여운

부산문화회관 2015년 기획공연

더욱 풍성한 무대로 즐거움 선사

부산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다양한 무대를 선사해온 부산문화회관의 기획 공연,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이 2015년에도 풍성하게 이어진다.

2015년에는 특히 부산문화회관에서 2014년 처음으로 실시한 기획공연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장르의 차별화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2015년 첫 기획공연은 1월 17일 베를린 필하모닉과 비엔나 필하모닉의 수석 관악주자로 결성된 ‘빈-베를린 브라스 퀸텟(Wien-Berlin Brass Quintet)’의 무대로 막이 오른다. 서울국제음악제 개막 공연을 위해 첫 내한공연을 갖는 ‘빈-베를린 브라스 퀸텟(Wien-Berlin Brass Quintet)’은 유럽과 미국에서 금관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과 함께 청중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금관 5중주단으로 수준 높은 금관의 세계로 희망의 선율을 선사할 계획이다. 1월에는 ‘빈-베를린 브라스 퀸텟(Wien-Berlin Brass Quintet)’ 외에도 20일 슈트라우스 음악의 정통성을 잇고 있는 빈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 24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세계음악 디스커버리 무대가 열린다. ‘세계음악 디스커버리’는 여행과 음악을 결합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기획 프로그램으로 공향으로 변모한 색다른 공연장에서 즐기는 문화체험과 지휘자와 해설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다.

1월 25일 러시아로 떠나는 음악여행을 시작으로 4월 25일 프랑스, 6월 13일 아메리카대륙, 7월 25일 독일, 10월 24일 오스트리아, 12월 26일 이탈리아



오즈의 마법사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등 6회의 공연이 진행된다.

3월에는 우리 국악의 아름다움과 퓨전국악의 멋스러움을 알리운 부산국악챔버 오케스트라 여운과 유진박, 오정해가 함께 하는 ‘아리랑 아! 아리랑’, 4월에는 발터 벨러(Water Weller)가 지휘하는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가 펼쳐진다. 2006년 11월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사랑나눔 무대를 꾸준히 열어온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 UKO도 8월과 10월 두 차례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8월에는 ‘한여름의 영화음악’을 주제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하이라이트, 영화 ‘신들러 리스트’, 영화 ‘여인의 향기’, 뮤지컬 ‘레미제라블’ 등 친숙한 영화와 뮤지컬 곡들을, 10월에는 ‘가을에 듣는 로맨틱 뮤직’을 주제로 가을의 서정을 담은 우리 가곡과 감성적인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줄 계획이다.

12월에는 전 세계에서 공연되는 12월의 낭만동화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이 대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호두까기 인형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이야기와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는 웅장하고 스펙터클한 구성, 고난이도의 안무로 연말 공연의 정석이 된 작품으로 관객 모두를 환상적인 동화의 세계로 끌어준다. 음악, 발레 외에도 다양한 계층의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어린이 프로그램 2편도 선정되었다. 4월에는 30만 명 어린이들이 선택한 송승환의 명작동화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부산무대에 오른다. 어린이난타 ‘오즈의 마법사’는 2005년 12월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첫 공연 당시 80%의 놀라운 좌석 점유율을 자랑하며 어린이 공연계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5월에는 전래동요, 클래식음악, 무용, 애니메이션 등 복합 장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예술적인 감동과 흥미로움을 전달하는 어린이 창작음악극 ‘두부와 콩나물’이 부산에서 펼쳐진다.

기획 공모 당선 프로그램 외에도 부산문화회관은 2015년 개관 이래 처음으로 부산시립예술단의 역량을 모은 오페라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12월 공연을 목표로 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부산시립예술단과 공연시설 등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부산문화회관 첫 오페라 작품으로 기대가 크다. 지난해 8월 첫선을 보인 부산챔버 뮤직페스티벌은 9월 9일 부터 12일까지 나흘간 화려한 실내악의 향연을 펼칠 계획이다.



을미년

지난 한해동안 부산시립예술단을 아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은
새해에도 품격높은 문화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변함없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정진

2014년 부산문화회관 제야음악회로 한해를 마무리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15년에도 감성을 자극하는 명곡과 수준 높은 연주로 부산시민들을 만날 계획이다.

1월 12일 어린이들을 위한 눈높이 음악회 '악기가족

이야기'로 2015년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시작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한해동안 총 8회의 정기연주회와 신춘음악회, 가족음악회, 송년음악회, 제야음악회 등 다양한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2015년 첫 정기연주회는 1월 23일 신년에 대한 희망을 담은 경쾌하고 활력 넘치는 선율로 매년 사랑받아온 '신년음악회'로 진행된다. 이날은 제9대 지휘자를 역임한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오랜만에 부산시립교향악단의 객원지휘를 맡아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는 3월 10일 제 508회 정기연주회로 2015년 관객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이날은 John O'Connor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1번'의 협연과 함께 오랜만에 말러 교향곡 제1번을 들려줄 계획이다.

리 신차오는 제508회 정기연주회에 이어 3월 27일 신춘음악회로 2015년 새봄의 시작을 알린다. 신춘음악회에서는 생동감 넘치는 무궁동 폴카, 천둥과 번개 폴카, 예술가의 생애 왈츠 등 우리 귀에 익숙한 J. 슈트라우스의 폴카와 왈츠로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그 외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11시 브런치 콘서트 '웰빙콘서트', 청소년 유망주 발굴을 위한 '청소년 협주곡의 밤', 5월 구군 문화회관에서 펼치는 '가족음악회', 12월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베토벤 합창교향곡을 들려주는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12월 31일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을 나누는 부산문화회관 '제야음악회'는 변함없이 이어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찾아가는 예술단, 전국의 교향악단이 펼치는 '2015 교향악 축제' 무대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30주년을 넘어 새로운 30년을 준비

2014년 창단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연주활동, 순화공연을 펼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15년 새해를 맞는 각오가 남다르다.

2014년 한 해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김철호 지휘자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무대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도시 부산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2015년에도 단원들과 함께 땀 흘릴 계획이다.

김철호 수석지휘자와 2015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각오로 올미년 새해를 맞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1월 국립부산국악원과 함께 하는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2015년 일정을 시작한다.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열리는 2015년 신년음악회는 2014년 창단 30주년을 기념해 12월 23일 열린 송년음악회의 교류 연주회에 이은 무대로, 부산 국악계를 대표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이 시민들과 신명난 우리가락으로 새해의 기쁨을 나눈다.

1월 국립부산국악원 연주회에 이어 2월에는 부산문화회관에서 '설맞이 국악한마당'으로 한해의 액을 푸는 특별한 연회를 펼친다. 김철호 수석지휘자 취임 이후인 2011년 처음으로 시작된 '설맞이 국악한마당'은 흥겨운 우리 음악과 춤으로 한해의 복을 기원하며 복조리를 주고 받으며 복을 기원하는 무대이다.

2월 '설맞이 국악한마당'에 이어 3월부터 6회의 정기연주회, 미래 국악도들을 위한 청소년 협연의 밤, 무더운 여름의 열기를 식혀줄 기획 공연 '팔빙수 같이 시원한 음악회', 우수 단원들이 펼치는 실내악 무대 '3인 3색 음악회',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음악회까지 2015년에도 풍성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

2013년 외교부 주최 전국지자체 해외 공연예술단 파견공모에 선정되어 독일 순화공연을 가진 바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14년에도 외교부의 '2015년 지자체 문화예술공연단 해외 파견 공모'에 도전, 지역 관현악단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공모결과 2015년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일본 공연길에 오르게 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아시아의 관문 부산을 기점으로 아시아 문화교류, 전통 음악 교류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10월경 '아시아 민족 음악의 밤'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시립합창단

멋진 앙상블로 합창의 즐거움 선사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2015 해맞이 부산축제'로 2015년 을미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부산시립합창단은 올해도 오세종 수석지휘자와 함께 정통적인 합창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정기연주회와 합창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특별·기획 연주회로 청중들과 만날 예정이다. 올해 부산음악애호가들과의 첫 만남은 2월 12일 열리는 2015 신년음악회. 부산시립합창단만의 멋진 앙

상블을 감상할 수 있는 한국가곡과 합창음악으로 새해의 희망과 새로운 출발을 위한 다짐을 들려준다. '신춘음악회'로 마련되는 제154회 정기연주회는 3월 13일 '봄을 향한 희망의 소리'라는 부제로, 봄의 환희를 노래하는 다양한 합창곡으로 관객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떠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펼쳐지는 가요합창음악회 'Concert Red, Green, Blue'는 관객들이 좋아하는 가요를 합창음악으로 재해석, 청중들과 함께 즐기는 '콘서트형 프로그램'으로 매년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열한 번째를 맞는 올해 무대 역시 다양한 주제와 감동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무대로 구성, 청중들과 만날 예정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국립합창단과 함께 베르디 '레퀴엠'을 들려준다. 부산시립합창단의 색깔에 맞춰 새롭게 편곡한 국내외 가요, 팝음악을 들려주는 '써머판타지' 2015년 무대는 7월 펼쳐진다. 정통 합창곡과는 또다른 합창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무대로, 양산시립합창단이 함께 출연해 국내외 가요와 칸초네, 샹송 등 관객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로 펼쳐진다. 9월 제156회 정기연주회에서는 가을의 감성이 묻어나는 감미로운 합창 무대로 합창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10월에는 부산시립합창단, 시민합창단이 참여하는 뮤지컬 형식의 창작칸타타 '해운대 아리랑'을 무대에 올리며, 11월 제157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울산시립합창단과 함께 하는 헨델의 '메시아'를 원전연주로 만날 수 있다. 그 외에도 송년음악회의 주요 레퍼토리로 연말 무대를 장식하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으로 꾸며지는 제158회 정기연주회(12월 17일~18일), 부산지역 최고의 합창 축제인 부산지역 아마추어 합창단 19개팀과 함께 하는 '부산합창제(10월 29일~30일)',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등은 2015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부산시립무용단 우수 레퍼토리로 시민 곁에 가깝게 다가가기

지난해 새로운 40년을 시작하며 그 어느 해 보다의
육적인 활동을 펼쳤던 부산시립무용단은 2015년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부산시립무용단의 우수 레퍼토
리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지난 40년간 발표한
많은 작품들 중 뛰어난 역작들을 발굴 수정, 보완작
업을 거쳐 부산시립무용단의 레퍼토리 시스템을 구
축할 계획이다.

홍경희 수석안무가는 5월과 11월 두 차례 열리는 정
기공연에서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린 대형
창작무대인 춤서사극을 준비하고 있으며, 부산에서
는 쉽게 만날 수 없는 명인명무전, 타 장르와의 협업

을 통한 다양한 춤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부산시립무용단의 2015년 첫 무대는 1월 22일 열리는 '2015 우리춤 산책-7인 7색' 무대
로, 평소 끊임없이 우리춤을 연마해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의 빼어난 전통 춤사위
를 감상할 수 있다. 3월에는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우리춤의 매력을 전하는 '춤추는 동
화'가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까지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어
린이 관객과 만나는 '춤추는 동화'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성과 안무로 큰 인
기를 모으면서 매년 매진사례를 낳고 있다.

매년 여름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야외춤관인 '2015 여름마당 춤 축제'는 7월23일
과 24일 이틀간 관객들과 만난다. 지난해까지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여름마당
춤관을 확대한 '2015 여름마당 춤 축제'는 보다 시민들 곁에 가깝게 다가가기 시민과 함
께하는 부산시립무용단이 되고자 마련한 시민 참여 춤 축제이다. '여름마당 춤축제'는
춤과 노래, 연기가 어우러지는 이색 무대로, 한국 전래동화, 설화에서부터 지난해는
'호두까기 인형'을 각색한, 발레와 우리춤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무대 '클라라와 호두
이야기'를 새롭게 선보여 관객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특히 '클라라와 호두이야기'
는 12월 '가족을 위한 송년특별공연'으로 관객과 다시 만난다. 2015년을 마무리하는
특별공연으로 마련되는 '클라라와 호두이야기'는 공연장소를 해운대문화회관으로
옮겨 지역 주민들에게 연말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춤 무대를 선사할 계
획이다.

이밖에 무용 인구저변확대를 위한 시민무용교실, 어린이 한국춤 교실, 풍류,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복지관 순회공연, 구문화예술회관 순회공연,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
연,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송년공연 역시 2015년에도 변함없이 진행된다.

부산시립극단

연극을 통한 세대간의 소통과 화합시도

천재화가 이중섭의 예술세계와 그의 부인 마사코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화가이중섭-길 떠나는 가족'으로 2014년을 마무리한 부산시립극단은 2015년에는 우수 레퍼토리를 통한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부산연극애호가들과 만날 계획이다.

지난 한해 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사춘기 소녀의 감수성을 그린 '안네의 일기', 철도민 영화로 인해 나타난 폐해를 소재로 한 영국 작품 'The Permanent Way'를 우리 현실에 맞게 각색한

'철로' 등 작품성과 재미를 겸비한 화제작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간 부산시립극단은 2015년 2차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 기획공연 등 총 31회의 무대를 계획하고 있다.

초대 예술감독 문석봉은 올해 창단 20주년을 눈 앞에 둔 부산시립극단의 기존 작품들을 엄선해 레퍼토리화하고 '명작시리즈 II'를 통해 해외 우수 번역극을 선별, 보다 다양한 작품들을 관객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취임 이후 역대 공연작품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무대에 올려온 문석봉 예술감독은 첫 앵콜공연이었던 '어메 게사니' 이후 두 번째 앵콜공연 '연쟁이 곡마단'을 지난해 다시 무대에 올리면서 고정 레퍼토리화 작업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부산시립극단은 젊은 세대 뿐 아니라 소외되어 있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연극'을 추진, 연극을 통한 세대간의 소통과 화합을 시도할 예정이다. 작품 제작에 있어서는 타 시도립극단과의 공동제작을 추진하고 앞으로 있을 해외 및 순회공연을 위해 작품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립극단의 2015년 첫 작품은 3월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오르는 창작극 '다른 피'. 영화 '해무'의 원작자 김민정 작가와 '연극집단 반'의 대표 박장렬의 연출로 지난해 9월 대학로에서 첫선을 보인 '다른 피'는 만화가의 죽음을 두고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살인사건을 통해 참혹한 과거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본질적 고통과 시대적 부조리를 다룬 작품이다. 7월에는 상임연출가 문석봉이 연출하는 기획공연 'The Musical'이, 10월에는 정기공연, 12월에는 특별공연 '아버지'로 2015년을 마무리한다. 이밖에 부산시립극단 단원들이 직접 수강생들을 지도하며 관객과 배우와의 거리를 좁혀나가고 있는 부산시립극단 여름연극교실은 올해도 여김없이 7월에 개최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낸 고3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공연도 11월 두 차례 마련된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레퍼토리 선사

70여명의 중, 고, 대학생들로 구성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고전에서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곡, 매년 6~8회의 정기, 특별, 순회연주회를 개최하며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교향악단은 그동안 단원들의 예술적인 기초, 감성, 표현력 그리고 기교적인 면을 향상시키기 위해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동·하계 캠프 등의 참여 프로그램, 앙상블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 다양한 경험과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 음악도들에게 다양한 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해왔다.

2014년 창단 20주년을 맞아 대내외적으로 한층 성숙해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지난해 '오페라속의 관현악'으로 프랑스와 러시아 등 다양한 오페라 작품 속의 관현악의 특색을 알아보는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였다.

창단 20주년을 넘어 힘차게 약진해 나가는 원년이 될 2015년은 3회의 정기연주회와 3회의 특별연주회, 순회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2015년은 지난 10월 경북도립교향악단으로 자리를 옮긴 이동신 전 수석지휘자에 이어 새롭게 위촉될 신임 지휘자와 함께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감성이 넘치는 수준높은 무대로 부산의 음악팬들과 만날 계획이다.

3월 26일 첫 정기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5월 28일, 9월 22일, 10월 22일, 12월 22일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를 통해 미래의 촉망받는 젊은 음악인에게 감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외 우수한 협연자들과의 만남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청소년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해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 단원내 오디션을 거쳐 실력있는 협연자를 선발하여 협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7월), 단원들이 선사하는 실내악 연주회(9월)도 변함없이 이어진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연주를 희망하는 지역 내 순회연주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합창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으로 초대

2014년 새로운 40년을 향한 도약의 해로 그 어느 해 보다 분주한 한해를 보냈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전상철 수석지휘자는 올해도 40년 역사에 걸맞는 탄탄한 음악성과 기획력으로 차별화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매년 창작합창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창작음악 발전에도 앞장서 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올해도 부산지역 작곡가들의 창작곡을 계속 연주할 계획이다.

2015년 2차례 정기공연과 5차례 특별공연, 교류공연,

순회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3월 12일과 13일 특별연주회 '2015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로 2015년 첫 일정을 시작한다. 단원들의 독창, 중창, 합창무대로 꾸며지는 '작은 음악회'는 단체무대에서는 보여줄 수 없었던 단원들의 개인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다. 올해 정기연주회의 테마는 '합창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그 첫 번째 무대는 4월 16일 아메리카로 음악여행을 떠나는 제143회 정기연주회, 두 번째 무대는 9월 19일 제144회 정기연주회가 펼쳐진다.

7월에는 전국의 시립소년소녀합창단들이 참여하는 제23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단 페스티벌이 사흘간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청소년 합창문화의 발전과 합창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해온 제29회 청소년합창제는 10월 25일 펼쳐진다. 특히 올해 청소년합창제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 독도사랑 음악회로 꾸며진다. 지난해에도 10월 정기연주회를 통해 독도를 소재로 한 시인 선용의 詩에 곡을 부친 노래로 '독도음악회'를 마련,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5년 합창제에 참가하는 모든 초중고 합창단, 區 소년소녀합창단들이 한 목소리로 독도사랑을 노래한다. 이밖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여름방학 기간인 8월 14일에는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를, 10월에는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의 교류연주회로 남원에서 순회연주회를 가진다. 매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활약은 2015년에도 계속된다. 특히 지난해 5월 독일 드레스덴 국제어린이합창페스티벌과 할레국제어린이합창페스티벌에 연달아 초청받아 현지인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5년 5월, 아르헨티나 이과수 국제음악제에 한국대표로 초청받아 그 명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명자 선생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
이매방춤보존회 회장

2014년 부산시문화상 공연예술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은 김명자 선생.
평생 남편이자 스승인 우봉 이매방 선
생의 춤을 전승 보급해온 김명자 선생
은 그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2015
년 특별한 신년을 맞는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운 일입니다. 부산시문화상이라는 큰 상을 받은 만큼 우리 춤의 전승 보급을 위해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남편 우봉 이매방 선생(88세)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로 지정(1987. 7. 1)된 후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로도 중복 지정(1990. 10. 10)된 국내 유일의 인간문화재이다. 우봉 이매방 선생의 반려자로, 제자로 평생 우리 춤의 맥을 잇기 위해 헌신해온 김명자 선생은 이매방춤보존회 회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이매방 선생은 2013년 명예 보유자로 인정받았고 우봉의 승무와 살풀이춤은 소정(素靜) 김명자(明子·72) 선생과 외동딸 이현주(41)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예맥을 잇고 있다.

범일동에 위치한 부산의 이매방춤 전수관에서 수많은 제자를 배출해낸 김명자 선생은 서울의 전수관과 이매방 선생의 고향 목포 전수관을 오가며 지난 10년간 분주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매방의 춤을 재현하고 전통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그동안 전국에 100여 명의 우봉춤 전수자와 이수자를 배출하는데 기여해왔다.

“살풀이춤은 단순한 춤이 아닙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살과 한을 풀어 나를 몰아의 세계로 이어주는 영혼의 춤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빠져 몸이 이끄는 대로 수건을 뿌리다 보면 이전에 하지 않았던 몸짓이 저절로 솟구칩니다. 그래서 춤을 출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김명자 선생의 춤은 우봉의 춤사위에 여성미가 가미돼 한층 애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 의령군이 고향인 김명자 선생은 예술애호가였던 인천의 고모 집에 머물며 우리 전통춤과 음악의 대가였던 이동안(발탈 초대 인간문화재), 김천홍(종묘제례악 초대 인간문화재) 선생을 만나 예능을 배우고 이 두칠 명인에게 가야금과 양금 등의 악기를 배웠다. 고모의 중매로 우봉과 결혼에 이른 김명자 선생은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는 이매방 선생의 가르침을 평생 마음에 새기며 묵묵히 한 길을 걸어왔다.

김명자 선생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를 이어 이매방 춤의 맥을 잇고 있는 딸 뒷바라지와 전수관 교육에 전념하느라 51세가 되어서야 첫 발표회를 가졌다. 그 후로는 2년에 한 번씩 제



자들과 이매방춤보존회 정기공연을 열고 있고 우봉의 춤사위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나 달려간다. 많은 무대에 오르지만 2009년 우봉춤 원형을 살린 서울 풍류극장 공연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다. 조금만 게을러져도 춤사위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원형의 춤을 보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김명자 선생은 제자들 중에서도 원형의 춤 보다는 창작을 가미한 자신만의 춤을 추기도 해 한편으로는 아쉬울 때도 있다.

“우리 영감님이 몸이 좋지 않아 이번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많이 기뻐하십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정신, 우리춤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고 제자들과 있는 그대로 원형의 춤을 전승하며 즐겁게 춤추고 싶습니다.”

2015년은 부산시문화상 수상을 기념해 제자들과 정기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2013년 임이조 선생의 별세로 승무 전수조교는 김명자 선생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모선 씨 둘 뿐이다. 선생은 그동안의 전승 활동을 체계화시키면서 기회가 된다면 예능보유자 심사에도 도전해볼 계획이다.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전수관을 지키며 자식처럼 제자들과 땀 흘려온 김명자 선생. 평생을 바친 그의 소신 있는 춤사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열을 선사한다.

호주의 크리스마스

“

12월의 한국은 많이 춥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볼 수 있는 북반구에 위치한 한국과 달리 호주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180도 계절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자랑한다. 그때가 가장 뜨거운 여름의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추운 겨울의 북반구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늦은 밤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오는 산타는 없지만 서핑보드나 보트를 타는 산타가 해변에 나타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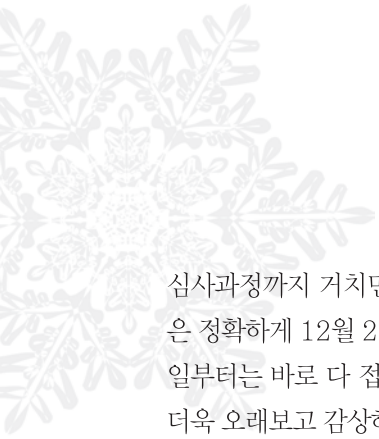


특히 호주의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의 설날, 추석 같은 아주 큰 명절이어서 이벤트가 많다. 두 달 전이 할로윈이긴 했지만 이미 10월부터 각 쇼핑몰과 백화점에서는 크리스마스 코너를 만들어 일찍부터 크리스마스를 준비를 한다. 아마 할로윈은 영어권 나라들의 큰 명절이라 많이들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영국과 호주는 할로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아이들의 이벤트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래서 호주는 크리스마스가 오기 훨씬 이전부터 크리스마스 장식을 미리 시작한다. 이 글이 크리스마스 전에 당도해야 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이 많이 아쉬울 따름이다. 각 도시에서는 크리스마스 장식 심사도 열린다. 집 밖에도 조명과 장식을 이용해서 정원까지 아주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데 올해의 작품 대신 작년에 구경 가서 찍어두었던 사진과 함께 감상하기도 한다. 심사는 좀 일찍 하는 편이라 신문에 공고가 나면 사람들이 밤에 조명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집들을 구경하기 위해 가족들과 그 집들이 있는 거리로 몰려든다.

호주에서도 약간의 경쟁 심리는 있는지 한 집만 덩그러니 장식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 동네에 장식을 한 집들이 여럿 있어서 밤에 마땅한 액티비티 거리가 없는 호주에서는 구경하는 재미가 꽤 쏠쏠하다.





심사과정까지 거치면서 심혈을 기울이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은 정확하게 12월 25일까지만 자랑스레 전시를 하다가도 26일부터는 바로 다 접어버린다. 때문에 이런 화려한 장식들을 더욱 오래보고 감상하기 위해 아마도 2달 전부터 장식을 시작하는 것 같다. 10월부터 시작하니 정확히 말하면 거의 3개월 정도.

올해는 호주에서 의미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일찌감치 트리 준비를 위해 쇼핑을 다녀 보았다. 한국과 다른 점은 12월 26일 Boxing day(박싱데이)라고 해서 선물을 주고 받는 날로 휴일이 하루 더 있다. 박싱데이에는 무조건 반값 세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알뜰한 주부들과 함께 그에 합류를 해야 할까 잠시 고민을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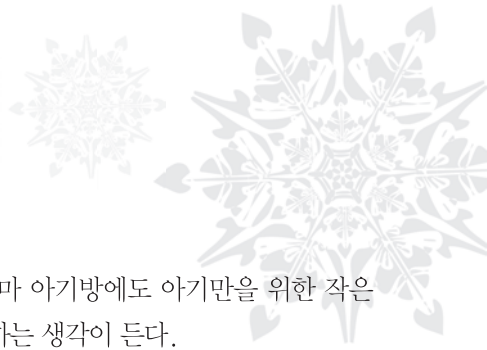
백화점은 아무래도 퀄리티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매년 크리스마스에는 유명 그릇 솥에서 캔들 홀더를 이용한 사기 제품 장식도 마니아들의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다. 매년 나오는 제품이지만 하나만 살 수도 없고 다 사자니 가격이 고

가라 호주의 주부들은 한 해 한 해 하나 둘씩 장만하는 재미도 쏠쏠하게 느끼며 트리 장식을 준비한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구매해서 대물림을 하기도 한다. 호주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집에 초대 받아 가본 적 있는데 평생을 모으고 부모세대로 부터 물려받은 것까지 모이고 모여 정말 화려한 전시장을 보는 듯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것을 오너먼트라고 하는데 이 오너먼트도 주문 제작부터 각종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제품들이 많다. 개성 넘치는 오너먼트도 많다. 저마다의 애뜻한 사연과 추억이 간직된 오너먼트, 예를 들어 할머니가 엄마에게 처음 떠준 골동품 손뜨개 양말, 아빠가 허니문 가서 사온 30년 된 천사인형,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한 오너먼트 등 매우 다양하다. 작고 귀여운 것은 일부러 사진을 찍어둔다.

보통 한국은 한 집에 트리를 하나만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호주는 집의 규모에 따라 엄청나게 큰 메인 트리부터 각 방에 뇌돌 소규모 트리와 트리 아래에 놓는 트리 전용 매트, 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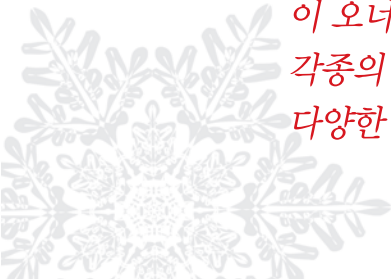


스마스 열차까지, 아마 아기방에도 아기만을 위한 작은 트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역시 크리스마스는 서양 명절이라 데코레이션이 상상을 초월해 아이쇼핑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사진에는 담아내지 못했지만 1년에 한 번 뿐인 크리스마스를 위한 전용 숲이 있다. 그곳에서는 정말 집안의 모든 장식을 주문 제작 및 판매하는데 내가 보기엔 시중에서 파는 제품보다 훨씬 튼튼하면서도 가격도 저렴하다. 크리스마스 장식도 여기 저기 다녀 보면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에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을 몇 년째 호주에 살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쇼핑을 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득템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것을 오너먼트라고 하는데 이 오너먼트도 주문 제작부터 각종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제품들이 많다.



‘Variety Santa Fun Run’이라는 이벤트도 있다. 11월 25일 참가비 25-30불의 참가비를 내면 산타복장을 주는데 이 옷을 입고 달링하버에서 5Km를 뛰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든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쓰인다. 한국에도 12월이면 올림픽공원에서 산타 마라톤 5Km, 산타 걷기 5km, 산타 스포츠 토너먼트, 산타 줄다리기 등 다양한 종목의 산타 스포츠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올해는 축제가 열리지 않았지만 지난해는 그 수익금을 필리핀 태풍 피해 여성과 어린이와 비인기 종목 스포츠 꿈나무를 위한 기금으로 지원했다.

화려한 호주의 크리스마스는 이처럼 볼거리가 많지만 사실 이맘때면 한국에서 은근히 고대하고 기다리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많이 그리운다. 정말 한국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그리워지는 무더운 밤이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고 2015년 새해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셰익스피어 로맨스의 세계

“

로맨스(romance)라는 용어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고대 프랑스어를 라틴어 자체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로맨스어로 쓰인 기사의 영웅담을 다룬 고대 프랑스 문학의 한 장르를 로맨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영국의 에드먼드 스펜서(Edmund Spenser)의 <선녀여왕>(The Faerie Queene)을 로맨스로 부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로맨스는 영웅적인 기사나 비현실적인 인물이 등장하여 먼 이국적인 장소에서 겪게 되는 영웅적인 모험이나 신비로운 체험, 혹은 목숨을 건 열정적인 연애 이야기를 지칭하게 되었다. 셰익스피어의 로맨스(극)는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를 묘사한다는 점에서 낭만적이며, 남녀의 사랑과 이별과 재결합 등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사랑의 로맨스이다. 물론 여기에 복잡한 희비극적 요소들이 작용하지만, 극의 초기에 제기되는 비극적 갈등은 극의 결말에 모두 행복하게 해결된다.

셰익스피어의 로맨스는 보통 그의 후기 희극작품들, 즉 <페리클레스>(Pericles), <심별린>(Cymbeline), <겨울 이야기>(The Winter's Tale) 및 <폭풍우>(The Tempest)를 가리킨다. 셰익스피어와 존 플레처(John Fletcher)의 공동작품으로 여겨지는 <두 귀족 사촌 형제>(The Two Noble Kinsmen)를 로맨스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의 네 작품을 셰익스피어의 후기 로맨스라고 부른다. 셰익스피어의 후기 희극작품을 로맨스라고 지칭하게 된 것은 1875년 에드워드 도우든(Edward Dowden)에 의해서였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후기 희극이 극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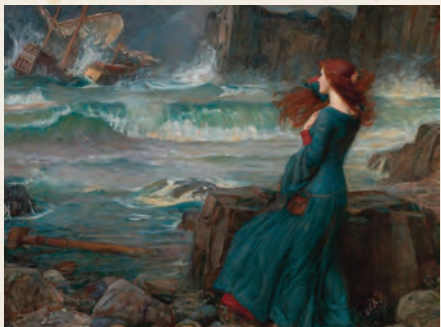
통일성을 어기고 광대한 시간과 공간에 걸쳐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중세의 로맨스와 흡사하다고 하여 로맨스로 분류하였다. 셰익스피어의 로맨스는 초기 낭만희극에 비해 훨씬 더 비극적인 요소가 많고 주제나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희극이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셰익스피어의 로맨스는 비극적 과정이 두드러지긴 하지만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는 점에서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희극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낭만희극에 비하여 후기 로맨스에는 비극적 절망과 슬픔이 너무 커서 마지막의 화해와 용서를 통한 재결합이 지난 모든 비극적 과정을 무효화시키기에 역부족이다. 1623년의 첫 번째 2절판 셰익스피어 희극전집에서 <겨울 이야기>와 <폭풍우>는 희극으로 분류되었으나, <심별린>은 비극으로 구분되었고, <페리클레스>는 아예 실리지도 않았다. 이는 후기 로맨스가 희극적 요소와 비극적 요소의 강도에 따라 희극으로 보일 수도 있고 비극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로맨스 작품들은 셰익스피어가 주요 비극작품들을 내놓은 후, 대략 1608에서 1611년 사이에 쓴 것으로 여겨진다. 그가 비극 작품들을 연이어 쓴 것은 극작가로서 극장 공연의 흥행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그가 말년에 희극으로 돌아선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

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가 비극에 이어 로맨스를 썼다는 점은 로맨스의 장르적 특성이 비극과 희극의 중간이거나 혼합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16세기 영국의 '희비극'(tragicomedy)은 연극의 고전적인 기본법칙인 삼일치(three unities)의 법칙, 즉 시간, 장소, 행위의 통일성을 파괴하고, 등장인물의 상하계급을 뒤섞거나 가상적인 이야기를 묘사하는 등 토속적인 낭만극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런 희비극을 가리켜 당대의 시인 필립 시드니(Philip Sidney)는 '잡종 같은 희비극'(mungrell Tragy-comedie)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존 플레처는 희비극을 가리켜 환희나 살인과 관련지어 만든 용어가 아니며, 죽음이 없다는 점에서 비극이 아니지만, 죽음에 근접하기 때문에 희극도 아니라고 규정한다. 그의 정의는 행위 혹은 줄거리의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극의 장르는 우선적으로 등장인물들이 죽느냐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2차적으로 죽음에 어느 정도 근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어쨌든 셰익스피어의 로맨스 작품들은 초기의 낭만 희극작품들과 달리 비극적 요소와 신비스런 요소를 혼합하는 희비극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희극과 비극이 혼재한다는 점에서는 문제극과 흡사하지만, 문제극처럼 위험한 순간이 갑작스럽게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거나 미해결의 문제점을 남기는 것이 아니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가 <폭풍우>의 한 장면을 그린 유화(1916)



<심벌린>의 한 장면을 그린 작가 미상의 그림(1869)

라, 극 전체를 통해 이어지는 비극적 갈등이 행복하게 해결되는 결말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후기 로맨스는 이런 희비극의 발전에 영향을 입었을 것이며, 주제나 스타일은 그의 개인적인 인생관이나 감정의 변화 외에도 군주의 취향이나 극단 배우들의 노령화라든가 상류층 관객수의 증가 등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는 비극을 좋아했고, 그녀의 뒤를 이은 제임스 1세(James I)는 로맨스를 선호했다고 한다. 이 점도 셰익스피어가 비극에서 로맨스로 관심을 돌린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또한 희극이나 비극보다 더 넓은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세계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그의 로맨스는 바다의 폭풍이라든가 실내외의 풍족한 경치, 공상적인 무대 배경,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공간적인 이동, 무대 위의 장엄한 효과 등을 요구한다. 주제상으로 보면, 그의 로맨스는 믿음과 구원을 다루고 있고, 악행에 대하여 선행이 보상받는 주제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로맨스에는 이런 희비극적 특성 외에도 다른 많은 특징들이 있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깨달음이 있는가 하면, 상식을 벗어난 줄거리가 전개되고,

지리적으로 먼 배경이 펼쳐지고, 인위적인 정교한 수사법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초기 낭만희극과 달리 후기 로맨스에서는 나이든 주인공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낭만극의 젊은 남녀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기성세대의 억압이나 갈등을 피하여 숲속 세계에 들어가서 정화과정을 거쳐 갈등을 주도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로맨스의 나이든 주인공들은 왕이나 귀족들로서 비극적인 갈등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극복하고 결국 기존의 관습과 질서를 복구한다. 문제의 해결이 기존 질서로부터의 자유나 해방이 아니라 기존 질서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이다. 물론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재결합하는 화해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로맨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런 갈등과 해결에 마법이나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개입한다는 점이다. 문제극에서는 어떤 어려운 문제에도 해결의 주체는 인간이지만, 로맨스에서는 마법이나 초자연적인 방식이 인간의 힘을 대체한다. <심벌린>의 주피터(Jupiter)라든가 <폭풍우>의 에어리얼(Ariel)이나 여신들처럼 초자연적인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 점에서 셰익스

피어의 로맨스는 중세의 로맨스 전통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셰익스피어의 로맨스는 희비극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만, 단순히 희극과 비극을 섞어놓은 장르는 아니다. 사실상 셰익스피어와 동시대 극작가들 가운데도 희비극 장르에 도전한 작가들이 많았다. 존 플레처는 물론, 그와 함작으로 많은 작품을 냈던 프랜시스 보몬트(Francis Beaumont), 필립 메신저(Philip Massinger), 제임스 쉘리(James Shirley) 같은 작가들도 당대에 인기 있던 희비극 작품을 쓰기도 했다. 이런 희비극은 1642년 극장이 폐쇄되기 전까지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플레처의 작품은 1660년 왕정복고가 된 후 다시 인기를 얻기도 했다. 이런 희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비극은 후일 멜로드라마의 형식으로 발전하여 오늘날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르네상스 이후에는 로맨스의 희비극의 줄거리 자체보다 주제와 형식적 측면이 강조되었고, 풍자극이나 '어두운' 희극과의 연관성은 현대의 부조리극과도 연결되어 전후 영국극의 한 장르가 되었다.

새뮤얼 베CKETT(Samuel Beckett), 톰 스톱파드(Tom Stoppard), 해롤드 핀터(Harold Pinter) 같은 작가들이 이런 장르의 극을 썼으며, 메타모더니스트(metamodernist)나 포스트모더니스트(postmodernist) 운동에 참여한 다수 작가들도 희비극을 이용했는데, 데이비드 포스터 윌러스(David Foster Wallace)의 1996년 작, <무한한 흥미>(Infinite Jest)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셰익스피어의 로맨스는 현대극과도 맥이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글
강기표
건축사사무소
아체/ANP 대표
동명대학교
인제 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국제시장’과 공간의 시대적 흐름 - 영화 ‘국제시장’을 보고

윤제균 감독¹⁾이 <1번가의 기적>, <해운대>에 이어 <국제시장>으로 부산을 다시 다루고 있다. ‘덕수’(황정민)의 회상으로 시작한 영화는 흥남철수, 판자촌과 국제시장에서의 삶, 파독광부와 간호사, 월남 전, 이산가족 찾기 등 ‘덕수’와 그의 가족들 삶과 더불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돌아보게 한다.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라고 나 할까! 오직 가족을 위해서 굳세게 살아온 우리들의 아버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윤제균 감독은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 당신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아 온 아버지를 바라보며 늘 죄송한 마음이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만든 영화”라고 한다. 또한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한 헌사에 알맞은 공간을 고민하다가 과거 피란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현재까지 서민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일상의 소박한 꿈과 희망이 움트는 공간이기도 한 ‘국제시장’을 배경으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오늘에서, 조금은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변해가는 ‘국제 시장’은 고집스러운 ‘덕수’의 삶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온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의 무거운 어깨를 다시 보게 한다.

도폐기시장

‘국제시장’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의 거주지였

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갈 즈음 미군의 폭격 우려로 소개지(疏開地)가 되었고, 종전 후 일본으로 돌아가는 일본인, 일본에서 돌아온 한국인들은 여기서 물건을 보따리 채로 사고팔았다고 한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도폐기시장’²⁾이고 지금의 국제시장이다. 한동안 ‘도폐기시장’으로 불리던 국제시장은 ‘자유시장’으로 불렸고, 1948년에는 공식명칭을 ‘자유시장’으로 정하고 단층목조건물 12동이 건립되었다. 한국 전쟁 중에는 부산으로 몰려든 피난민들로 그야말로 성시를 이루었다. ‘덕수’ 가족이 흥남을 떠나 고모가 운영하던 가게 ‘꽃분이네’를 찾은 때이기도 하다. 목재와 기와로 단출하게 지어진 가게들은 전쟁 중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류성희³⁾ 미술감독은 “국제시장 안에서 어려운 생활을 극복해나가면서 사는 옛 시대의 모습을 젊은 친구에게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작업했다”라고 하며 국제시장이라는 공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1950년과 1953년의 연이은 두 차례의 대화재가 있었고, 1968년 1월의 화재 이후 9개 동이 철근 콘크리트의 건물로 신축되었다. 이때 짬 ‘덕수’는 독일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간 탄광 생활을 접고 돌아왔을 때이고, 이모부로부터 ‘꽃분이네’를 인수 한 때이다. ‘꽃분이네’의 건물과 주변 건물들은 창과 창사이의 콘크리트 수직재와 수평재



1 50년대의 국제시장-스케치-C.J엔터테인먼트 제공
 2 60년대말의 국제시장-오픈 세트-C.J엔터테인먼트 제공
 3 80년대 꽃분이네-오픈세트-류성희 미술감독 제공
 4 현재의 국제시장_@강기표

의 의장과 타일마감으로 산업화 초기의 상가 건물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이후 1969년 국제시장 상가변영회가 설립되었고, 1977년 정식으로 시장개설 허가를 받았다. 현재 '덕수'가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꽃분이네'의 원형을 찾기는 쉽지 않다. 가게 상품의 모습으로 본다면 국제시장 서편의 '깡통시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건물의 외형적 모습은 국제시장 주변의 일부 건물에서 볼 수 있다. 현재 국제시장은 예전 외형 위에 알루미늄 패널로 덮고 있다. 알루미늄 패널을 걷어 내고 숨어 있는 60년대 말 산업화 초기 건축의 원형으로 복원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판자촌에서 아파트로

한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며 살아온 '덕수'의 인생을 따라 변화하는 역사적 공간과 시대적 흐름 속에 '집'이 있다. 1950년대 흥남의 어린 '덕수'의 집은 초가집으로 고향 같은 느낌을 갖고 시작한다. 헤어진 아버지와 여동생의 아련한 그리움이 베어 나는 집이다. 부산으로의 피난 후 덕수 가족은 고모의 집 한 칸에서 살게 된다. 용두산의 판자촌이다. 전쟁 중 물자 고갈로 폐자재와 판자로 벽과 지붕을 만들고 판자 지붕 위에 콜타르와 모래로 만든 종이로 지붕을 다시 덮었다. 판자와 종이 루핑은 '부산역전대화재'⁴⁾를 비롯한 수차례 화재의 불쏘시개가 되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파독광부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덕수와 억척같은 덕수엄마는 마당이 딸린 근대 한옥으로 옮기게 된다. 철재 대문을 열고 들어온 덕수를 맞이하는 마당에

서의 다양한 모습들은 마당이 갖고 있는 공간적 성격과 이야기를 같이한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덕수 노부부의 마지막 집은 아파트이다. 마당 혹은 대청이 갖고 있던 성격은 거실이라는 핵가족의 공간으로 바뀌어 있다. 남부민동 자락의 집(영화 속 설정은 아파트이지만 테라스 하우스에 가까운 집으로 보인다) 마당의 평상에 앉은 노부부의 뒷모습은 시대를 걸머지고 살아온 어깨와 함께 멀리 국제시장과 영도다리, 남향이 펼쳐져 보인다.

1) 윤제균

기획, 제작, 각본, 감독 그리고 연기까지 다방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선보이고 있는 윤제균 감독은 광고 회사에서 광고 카피라이터로 활약하던 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신혼여행〉 각본으로 대상을 수상하며 영화계에 입문했다. 이후 그는 〈두사부일체〉, 〈색즉시공〉, 〈1번가의 기적〉, 〈해운대〉를 연출하며 코미디라는 장르 안에서 진정한 감동을 이끌어 내는 윤제균 스타일의 휴먼 코미디 영화를 완성시켰다.

2) 도떼기 시장

유래 ① '도떼기'에서 '도'는 '도매·도급·도거리' 등에 쓰이는 한자 '都'로서 '모두'라는 뜻으로 쓰인다. '떼기'는 '떼다'의 명사형이다. '떼다'에는 '한꺼번에 많이 사다'는 뜻이 있다. 유래 ② 일본어 取る(도루)는 잡다, 쥐다라는 뜻으로 해방 직후 부산에서 시모노세키까지 가는 연락선을 타고 본국으로 환급히 돌아가려던 수많은 일본사람들이 값비싼 연락선 운임에 보태려고 나무줄기로 엮어서 만든 소쿠리같은 짐을 국제시장에 모아서 경매에 붙였다고 한다. 낙찰받은 그순간 경매꾼들이 '돛따'라고 외쳤는데 '돛따'라는 말은 낙찰 받았다는 뜻으로 이 때문에 도떼기시장이 유래하였다고 한다.

3) 류성희

홍익대학교 도예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산업공예 대학원 도예과 석사과정을, AFI(미국영화연구소)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2001년 영화 〈꽃섬〉의 미술감독으로 데뷔하였고,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달콤한 인생〉, 〈괴물〉, 〈박쥐〉, 〈마더〉, 〈민추〉 등 특정 공간에 배우 못지않은 활기를 불어넣어 캐릭터의 감정을 극대화시켰다는 평을 받으며, 〈민추〉로 12회 부산영평상 기술상을 받았다.

4) 부산역전 대화재(釜山驛前 大火災)

1953년 11월 27일에 부산시 중구의 피난민 판자촌 일대에서 발생하여, 당시 부산 중구 일대와 부산역으로 번진 화재 사건이다.

※ 국제시장, 부산역대화재, 도떼기 시장의 유래 등의 이야기는 중구에서 태어나시고 자란 이용근(백상 기념관 자원봉사자) 선생님의 말씀이 크게 도움이 되었고, 국제시장의 역사에 관한 부분은 오수찬(사)국제시장변영회 부회장) 선생님의 도움이 컸다.

금융의 어제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색 체험관 부산은행 금융역사관

부산, 경남지역 최초의 금융역사관으로 지난 11월 4일 문을 연 부산은행 금융역사관이 금융의 어제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색 체험관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국제금융센터와 연결되는 부산은행 본점 1층에 자리한 금융역사관은 지난 1967년 창립한 부산은행 47년 역사를 한 곳에 집대성한 곳으로, 부산은행 역사관과 부산은행 홍보관, 금융·경제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곳은 우리나라 화폐와 금융의 역사, 금융, 경제에 대한 정보를 최첨단 영상과 게임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관람객들이 보다 친근하게 금융과 경제에 다가갈 수 있다.

금융역사관 입구에 자리한 부산은행 역사관은 1967년 창립부터 2014년 문헌 신사옥까지 부산은행의 태동에서부터 도전, 성장을 시대별, 항목별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은행 탄생과정에서의 발기인 회의록, 신설인가서, 언론기사 등을 비롯해 지난 1970, 80년대 업무에 활용된 수표발행기, 출납회계기 같은 장비부터 시대별 홍보 포스터와 행원 근무복, 시대별 예금통장과 순번대기표, 사은용 저금통 등 영상 및 패널, 모형, 사료 등을 통해 지나온 시대를 재현해놓고 있다. 역사관 한편에 마련된 '행기듣기 코너'에서는 가수 최희준, 정훈희 씨가 부른 부산은행 행기를 1971년 LP판으로 청취할 수 있다. 이어지는 부산은행 홍보관은 부산은행의 현재뿐 아니라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다. 창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총자산, 여수신, 직원수, 영업점수 등 발전해가는 부산은행의 활약상을 영상 또는 화면으로 볼 수 있으며, 역대은행장 코너와 부산은행이 그동안 수상한 상장 및 상패를 전시하고 있는 '인정받는 BS', 부산은행의 지역을 위한 활동을 소개한 '지역사회를



금융경제체험관



금융역사관 영상관



BS 아트갤러리

위한 BS' 부은인 갤러리, 기증자 명패 코너 등이 자리하고 있다. 포토존에는 키오스크(정보단말기) 4개를 배치, 동시에 다수의 관람객이 추억을 남길 수 있으며, 찍은 사진을 천장의 지구본에 피우도록 연출할 수 있어 관람객들의 호응이 크다. 또 '부은인 갤러리'는 부산은행 행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코너로, 전 행원 4천여명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합성해 세계지도를 완성했다. 지도 아래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현재 행원들의 모습과 근무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전시관인 금융·경제 체험관은 놀이와 학습을 통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금융, 경제 학습의 장으로, 퍼즐, 퀴즈를 활용한 '나는야, 저축왕' 등 게임과 함께 전통시대부터 현재까지 화폐 및 금융역사의 이해를 돕는 각종 콘텐츠들이 짜임새 있게 배치되어 있다. 화폐 역사, 금융 역사, 금융경제 체험 등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만화식 패널과 영상 등으로 재미있게 꾸며져 있어 부모님 손을 잡고 온 어린이들과 청소년 단체관람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부산은행 금융역사관은 개관 후 입소문을 타면서 두달도 안돼 벌써 관람객 5천여명이 다녀갔다. 현재 이 곳에는 전문학예사가 상주하고 있어 단체관람을 신청하면 학예사의 자세한 해설을 들으며 박물관을 둘러볼 수 있다. 앞으로는 정식 등록박물관으로 인가받아 부산은행과 지역금융의 어제와 현재를 아우르는 산실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또, 부산은행 금융역사관이 있는 부산은행 본점 1층에는 부산은행이 마련한 또다른 문화공간인 'BS 아트갤러리'가 자리하고 있다. 금융역사관과 함께 개관한 BS 아트갤러리는 갤러리 중앙뿐 아니라 벽면에도 무빙월(Moving wall)을 설치, 전시의 성격에 맞춰 공간을 가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개관 기념전으로 '지역 중견작가 27인展'이 2015년 1월 10일까지, 1월 15일 부터는 'BS부산은행 소장품전'이 열린다.

문의 부산은행 금융역사관 661-4814~6
museum.busanbank.co.kr

얼씨구~ 좋다~

부산판소리동호회 소리두레

“성명은 심학규요. 을축년 정월 달 산후달로 상처하고, 어미 잃은 딸자식을,
강보에 싸서 서 안고, 이집 저집을 다니며, 동남 젓을 얻어 먹여,
겨우 겨우 길러내어, 십오세가 되었는데, 이름은 청아롭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지난 12월 18일 저녁, 도시철도 장산역 인근에 위치한 김리아판소리연구소 출입문을 열자 판소리 한 대목이 흘러나온다. 이날은 소리꾼 김리아 씨가 강의를 맡고 있는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판소리 교육이 있는 날. 수업에 앞서 김리아 씨 제자가 펼치는 판소리 무대가 즉흥적으로 펼쳐졌다. ‘얼씨구~좋다~’ ‘잘한다~’라는 수강생들의 흥겨운 추임새에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른다.

부산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부산판소리동호회 소리두레는 소리꾼 김리아 씨를 주축으로 그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소리두레에는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을 비롯해 동래전통예술문화대학, 문화공간 백양산이 운영하는



방과후 특기적성 어린이반 등 만 5세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활동하고 있다.

“판소리에 있어서는 부산이 불모지라고 알려져 있지만 강습을 하다보니 의외로 우리 소리를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많더군요.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터전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소리두레를 개설했습니다.”

부산판소리동호회 ‘소리두레’를 이끌고 있는 소리꾼 김리아 씨는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이수자, 부산무형문화재 제3호 ‘동래학춤’ 구음 이수자로 활동 중이다. 바쁜 와중에도 소리에 대한 그들의 열정을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것은 뒤늦게 소리를 시작한 남다른 그의 이력 때문이다. 사범대학교를 나와 잘나가던 교사직을 그만두고 뒤늦게 소리에 빠졌던 그는 서른 중반에 소리꾼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늦게 시작한 만큼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소리공부를 한 김리아 씨는 그래서 힘들더라도 소리를 시작하려는 회원들의 열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현재 소리두레 회원수는 120여명. 이 중 무대에 서는 회원은 70여명에 이른다. 지난 2012년 11월 온라인 카페를 개설한 후 2013년 1월 8일 부산판소리동호회 ‘소리두레’를 창립하고 첫 번째 정기모임을 가졌다. 연령층도, 직업층도 다양하다 보니 ‘소리두레’ 회원이라도 아무래도 회원들간에도 자주 만나기 힘들었다는 김리아 씨는 그래도 1년에 한 두차례는 정기모임을 통해 그동안 익힌 실력을 서로 뽐내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기모임 횟수가 적다보니 매년 하반기에 열리는 정기발표회는 ‘소리두레’의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2013년 12월 1일 부산시민회관에서 첫 정기발표회를 가진 ‘소리두레’는 지난해 10월 29일 부산여자대학교 마릭홀에서 두 번째 정기발표회를 가졌다. 특히 두 번째 정기발표회는 부산여자대학교 치매 예방재활센터의 지원으로 치매로 고통받는 치매가족들을 위한 힐링음악회로 펼쳐져 많은 박수를 받았다.

더불어 함께하는 ‘두레’처럼 소리두레는 재능기부를 통한 이웃



사랑에도 앞장서오고 있다. 소리두레 공연봉사단을 조직해 어려운 우리 이웃을 찾아 음악사랑을 펼치고 있는 ‘소리두레’는 지난 12월 17일도 부산여자대학교 노인복지센터에서 공연을 펼쳐 추운 연말 훈훈한 이웃사랑의 정을 나누기도 했다. ‘소리두레’는 앞으로도 요양병원, 복지시설, 의료원 등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닐 예정이다.

이밖에 소리두레는 매년 여름과 겨울 두차례 캠프를 통해 소리공부와 더불어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해 왔다. 지난 2013년 6월에는 판소리의 고장 남원, 구례로 국악 성지순례를 떠나기도 했다. 2015년에는 ‘풍류를 찾아서’라는 타이틀로 답사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며, 영호남 교류음악회도 계획하고 있다.

“지금은 회원 대부분이 저의 제자들이지만 앞으로는 보다 많은 일반인들이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소리두레를 더욱 알려나가겠습니다.”

소리두레는 앞으로는 판소리나 민요뿐 아니라 정가, 단가, 가야금 병창 등 다양한 장르에 문을 열어 소리두레가 우리 국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_부산판소리동호회 소리두레 070-7658-8602
cafe.daum.net/pusanpansori

철새들의 낙원

을숙도로 떠난 겨울여행

2014년 마지막 달력 한 장을 앞둔 지난 12월 12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족들과 떠나는 105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12월의 테마여행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을숙도.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원하는 환경과 문화가 함께하는 '에코투어' 마지막 여행으로,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철새들의 낙원 을숙도로 탐조여행을 떠났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겨울여행을 떠나는 정기회원 가족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2014년 마지막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배아름(바이올린), 권순지(바이올린), 성정인(비올라), 김동미(첼로)로 구성된 현악4중주단이 동행하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울속도 여행의 첫 시작은 울속도 생태공원에 자리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버스로 40여분을 달려 도착한 에코센터에는 정기회원들과의 만남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온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단이 회원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울속도하구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2층 전망실은 어느새 현악4중주단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했다.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를 시작으로 이바노비치 '도나우강의 물결', 비발디 '사계 중 겨울', 쇼스타코비치 '재즈 오케스트라 모음곡 중 왈츠 II'까지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 연주에 회원들의 기립박수가 절로 터져나왔다.

연주회의 감동을 뒤로 하고 회원가족들은 에코센터 생태해설사와 함께 본격적인 낙동강하구 생태탐방에 나섰다. 첫 방문지인 에코센터는 생태복원지인 울속도철새공원을 보전,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생태에 대한 전시, 교육, 체험학습공간을 제공,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낙동강하구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7년 6월 개관했다.

“울속도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지역으로 수생식물, 물고기, 조개, 곤충 등이 풍부해 매년 약 167종 13여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오는 철새들의 고향입니다. 특히 겨울철은 천연기념물 제210호인 큰고니의 천국입니다. 큰고니 외에도 고니, 개리, 큰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 보호종들이 이 곳 낙동강하구에서 월동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의 형성과정과 지형변화, 생태계 현황, 철새의 비행경로와 서식환경, 국내의 습지현황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는 전시관을 둘러본 회원들은 2층 전망실 망원경을 통해 센터 앞 습지에 동지를 튼 겨울철새를 직접 관찰하기도 했다. 이어서 에코센터에서도 보로 20~30여분 떨어진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으로 자리를 옮겨 야외탐조에 나섰다. 울속도 남단에 위치한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은 지난 2006년도까지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하는 분노를 선박을 이용해 공해상에 해양처리하던 시설이었으나 현재는 낙동강하구 자연생태 자원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탐방, 탐조, 생태교육체험장으로 운영





되고 있다. 오후에 타게 될 생태탐방선 역시 이 곳에서 출발, 을숙도하구를 돌아보게 된다. 탐방체험장 인근 야외전망대에 도착, 가지고 있던 망원경으로 철새 탐조에 본격적으로 나선 회원들은 에코센터에서 숙지한 철새들의 모습들을 하나 둘 떠올리며 철새 이름 맞추기에 여념이 없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마친 후 정기회원들은 이번 테마여행의 하이라이트 생태탐사선 승선을 위해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 생태탐방선은 낙동강하구 을숙도 주변의 사주나 수로를 살펴볼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으로, 배를 타고 낙동강하구에 형성된 모래 사주인 맹금머리, 백합등, 도요등, 장자도, 신자도 등을 둘러보며 함께 탑승한 전문 자연생태해설사로부터 낙동강 하구의 지형과 사주 생성과정, 낙동강 하구에 서식하는 주요 생물 등을 관찰할 수 있다. 평소 접해볼 수 없는 색다른 경험에 해설사의 유쾌한 입담이 더해져 예정된 1시간 30여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12월 테마여행의 마지막 방문지는 아미산전망대. 탐사선으로 둘러본 낙동강 하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미산전망대는 부산의 대표적인 전망대 중 한 곳으로, 낙동강 하구 모래섬과 철새, 그리고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생태탐방선을 타고 돌아본 맹금머리, 백합등, 도요등, 장자도, 신자도가 전망대 너머 마치 한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조금씩 어두워져 가는 을숙도하구를 바라보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12월, 자연과 문화가 함께했던 을숙도여행은 새해에 거는 희망과 기대처럼 오랫동안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슴속에 기억될 것이다. 후원: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2015년 부터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이
 홀수달 둘째 금요일로 일정이 조정 됩니다.
 1월 포항여행을 희망하시는 정기회원들은 부산문화
 회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홍보마케팅부 607-3100
 마감 : 1월 3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포스코역사관

1월 9일(금) 해뜨는 도시 포항

전국 최대의 일출 명소 호미곶과 세계적인 철강기업 포스코를 품고 있는 해뜨는 도시 포항으로 떠나는 겨울여행 포항의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모습을 2015년 을미년을 설계해본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0:30 포항도착, 포스코 역사관 견학
- 12:30 중식
- 13:00 포스코 견학
- 14:30 등대박물관,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 16:00 부산으로 출발



감은사지

3월 13일(금)

9주년 기념 '다시 떠나는 경주 수학여행'

매달 둘째 주 금요일 펼쳐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9주년을 맞아 테마여행 첫 출발지 경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잃어버린 영화를 간직한 경주의 절터를 통해 찬란한 신라의 역사를 알아본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 09:30 경주도착, 황룡사지, 호림사지 탐방
- 12:00 중식
- 13:00 장항리, 감은사지 등 탐방
- 15: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00 부산으로 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는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 서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 마감일자 | 2월 16일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Culture Life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울속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한결아트홀(구 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O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LIG아트홀 | 1544-3922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 45 프리뷰
- 50 리뷰
- 52 프로그램 가이드
- 64 새로 나온 음반
- 65 새로 나온 책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5 빈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New Year's Concert



지휘 페터 구트



소프라노 김은경



요한 슈트라우스 스페셜리스트인 페터 구트(Peter Guth)가 창단한 빈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Strauss Festival Orchestra of Vienna 이하 SFOV)가 1월 20일 부산 음악애호가들에게 밝고 아름다운 희망의 선율을 선사한다.

1978년에 창단된 빈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빈 출신 음악인들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전통적인 고전음악에서부터 빈의 상징인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 등을 선곡, 전 세계 음악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1978년 7월, 이탈리아의 Villa Manin에서 열렸던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첫 데뷔 야외콘서트에서 4,000명의 청중이 몰려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준 바있다. 특히 1999년에는 요한 슈트라우스 기념연도에 빈의 무직페라인잘에서 열린 갈라콘서트 'Salute to Vienna'를 성공적으로 개최, 빈 출신 음악인들에게도 큰 박수를 받았다. 이후 유명세를 더해간 SFOV는 유럽과 아시아, 미주까지 투어를 다녔고 공연 흥행과 음반 판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며 세계무대에서 자리 매김했다.

2000년 1월 1일, 빈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빈 콘체르트하우스에서 밀레니엄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회를 열었고 청중들은 앙코르를 외치며 새로운 밀레니엄을 환호 속에 맞이했다. SFOV는 매년 빈 콘체르트하우스에서 두 차례 신년음악회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2015년 SFOV의 첫 부산 연주회에서는 페터 구트가 지휘자로, 소프라노 김은경이 협연자로 무대에 오른다. '빈이 낳은 희대의 음악가'로 불리는 페터 구트는 이 악단의 수석주자와 지휘를 겸해 한 손에 바이올린을 들고 직접 연주하면서 지휘하는 특색 있는 연출을 보여준다. 서울대학교와 이태리 로시니국립음악원을 졸업한 협연자 김은경은 이태리 PESCARA콩쿠르 우승, M.GIORGIO콩쿠르에 입상하고 다양한 무대 활동을 펼쳐왔다. 테너 폴 포츠와 세계적인 바리톤 블라디미르 체르노프와 협

연 무대로도 친숙한 김은경은 현재 백석 예술대학교 교수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트리치 트라치 폴카'를 시작으로 '봄의 소리 왈츠', '황제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청년의 열정',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대장간 폴카', 에두아르트 슈트라우스의 '주저없이 빠른 폴카', 칼 미하엘 치러의 '밤의 몽상가 왈츠' 등 빈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명성에 맞는 최고의 신년무대를 선사한다.

일 시 | 1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100,000원, S석 70,000원, A석 5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8)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5 우리춤산책



태평무



평소 끊임없이 우리춤을 연마해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의 우리춤에 대한 열정과 빼어난 춤솜씨를 확인할 수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5 우리춤 산책'이 1월 22일 부산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를 비롯해 장고춤, 한량무, 검무, 사풍정감(土風情感), 화전태, 진도북놀이 등 다채로운 우리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첫 무대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황동하의 '사풍정감(土風情感)'. 우봉 이매방 선생이 굳은 절개를 지닌 선비가 아름다운 진리와 선행으로 깨달음을 얻은 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북돋워 넘치는 흥취를 춤사위로 표현한 춤으로, 배움과 덕목을 두루 갖춘 선비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기풍(氣風)과 기개(氣概)를 엿볼 수 있는 춤이다.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이현숙이 선보이는 '화전태'는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궁중무용을 재구성, 새롭게 창작한 무대로,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춤사위와 함께 공중에 날리는 한삼의 아름다운 선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농악이 지닌 흥과 신명 뿐 아니라 다양한 발동작과 유연한 손짓 춤, 그리고 섬세하면서도 다양한 가락이 일품인 이매방류 장고춤은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김주연이, 가 법고 절도있는 몸짓이 화선지에 쳐올린 난과 같다 하여 난초에 비유되는 태평무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이현주가 선보인다. 특히 근대무용계의 시조이자 대가인 故 한성준 선생이 창작한 한영숙류 태평무는 하체의 발 디딤이 일품으로 화관족두리에 당의, 금박 남색 치마를 사뻐히 걸어주고 잔걸음, 잔사위로 장단 사이를 당당하게, 경쾌히 가로지르는 묘미가 있다.

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 장래훈이 선보이는 한량무(임이조류)는 학(學)과 덕(德)을 고루 갖춘 고고한 선비의 외면 모습과 대비하여 정과 흥의 운치를 지닌 선비의 내면

세계를 춤사위로 표출시킨 춤이다. 부산시립무용단 수석 김주령은 칼을 들고 추는 춤으로 '검기무'라고도 불리는 검무를 선보인다. 번뜩이는 검을 들고 다양한 동작을 구사하는 검무는 검을 다루는 기예와 검기(劍氣)를 품은 협(俠)의 미(美)까지 복합적이면서도 독특한 매력을 품어내는 춤이다.

'2015 우리춤 산책'의 마지막 무대는 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 김진영, 박상용, 단원 허태성이 선보이는 진도북놀이(양태옥류)로 장식한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8호인 진도북놀이는 북을 장구처럼 비스듬히 어깨에 메고 쌍북채를 사용해 자유로운 가락과 묘기를 변화무쌍하게 구사하는 춤이다.

일 시 | 1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31~2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7회 정기연주회 2015 신년음악회



2014년 제야음악회 무대로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희망의 선율을 선사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1월 23일 '2015 신년음악회'로 2015년 본격적인 연주 일정을 시작한다.

2015년 신년음악회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활동한 제9대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객원지휘자로, 부산출신의 라이징스타 김재원이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오랜만에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아니시모프는 현재 아일랜드 RTE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명예지휘자이자, 벨로루시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및 로스토프-온-돈 오페라단 수석지휘자로 재직 중이다. 아니시모프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재직 당시 19세기에서 21세기 작곡가들의 교향곡을 포함하여 40여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매년 개최되는 '교향악축제'를 비롯하여 도쿄와 오사카에서 열린 '아시아 오케스트라 위크'에도 참가하여 호응을 얻었다.

오랜만에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이번 무대는 아니시모프의 조국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사람인 차이코프스키의 이탈리아 기상곡, 바이올린 협주곡, 호두까기인형 모음곡 등의 명곡들을 선곡,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광활한 대륙적 기상과 감성을 불어넣어준다.

신년음악회 협연자로 무대에 오르는 부산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은 2013년 대관령국제음악제 라이징스타로 선정된 총망받는 연주자이다. 김재원은 2014 독일 Frankfurt Young Artist 국제콩쿠르 1위, 2013 홍콩 Schonfeld 국제콩쿠르 입상, 2012 이탈리아 Lipizer 국제콩쿠르 최연소 2위 입상 및 청중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재원이 들려주는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베토벤, 멘델스존,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불어 최고의 걸작품으로 널리 연주되고 있다.

바이올린협주곡에 이어 연주되는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인형' 모음곡은 차이코프스키가 발레곡 가운데 8곡을 발췌하여 직접 연주회용으로 편곡한 곡으로 아름다운 멜로디와 상상력 가득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명곡이 되었다.

신년음악회의 마지막 무대는 환상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이 장식한다. 오늘날 널리 사랑을 받고 있는 환상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은 반목의 테마와 사랑의 테마가 서로 얽혀 파국을 향해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차이코프스키 특유의 색채적 오케스트레이션이 돋보인다.

일 시 | 1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A석 10,000원 · B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음악 디스커버리 WORLD CLASSIC DISCOVERY 러시아



예술감독 오충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주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프로그램 '세계음악 디스커버리' 첫 무대가 1월 25일 막이 오른다.

2015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공모에 선정된 '세계음악 디스커버리'는 여행과 음악을 결합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기획프로그램으로 색다른 문화체험과 지휘자와 해설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다.

오충근의 지휘, 음악칼럼니스트 류태형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1월 25일 러시아로 떠나는 음악여행을 시작으로 4월 25일 프랑스, 6월 13일 아메리카 대륙, 7월 25일 독일, 10월 24일 오스트리아, 12월 26일 이탈리아 등 6회의 공연이 진행된다. 음악회와 여행을 결합한 '세계음악 디스커버리'는 음악회장을 공항으로 설정, 실제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하기까지의 과정과 동일하게 여권(팜플렛), 탑승권(티켓), 입국심사(공연스탬프), 면세점(홍보물) 등 작지만 차별화된 생각으로 음악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다.

러시아로 떠나는 첫 무대에서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차이코프스키, 쇼스타코비치, 스비리도프, 하차투리안, 라흐마니노프, 립스키코르사코프, 무소르그스키의 음악으로 러시아 음악여행을 떠난다. KBS교향악단 단원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최연소 악장(만25세)을 역임한 지휘자 오충근은 제30회 부산음악상(지휘부문), 제9회 KNN 문화대상(문화예술 부문)을 수상하고 현재 고신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는 특히 우아한 음색의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가 특별한 러시아여행에 동

행한다. 양경아는 서울예고와 미국 맨하탄 음대 및 동대학원, 메릴랜드대학교를 졸업하고 귀국, 현재 동아대학교, 한양대학교 외래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JK양상블 리더, 아미쿠스 피아노 콰르텟 리더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객 우선의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연주로 음악애호가들과 만나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1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기금 지원사업에 음악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된 바 있다.

일 시 | 1월 24일 토요일 오전 11:0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www.bso21.com)

Preview

2015 제10회 부산국제음악제



세계적인 스타연주자들의 패기와 열정, 관록과 여유가 묻어나는 명 연주로 최고의 감동을 선사해온 부산국제음악제 2015년 무대가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부산문화회관과 신세계 센텀시티 문화홀, 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국내 유일의 최장수 민간주도형 국제음악제로 자리매김한 부산국제음악제는 올해로 역사적인 10주년을 맞아 'Favorite & Revisited'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올해 부산국제음악제를 찾는 연주자들로는 음악감독으로 부산국제음악제를 이끌어온 우리 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백혜선을 비롯해 뉴욕타임즈로부터 '비범한 테크닉과 완벽한 컨트롤 속에 투명한 소리로 채색된 피아니즘의 소유자'로 호평받은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바바얀, 미국을 대표하는 피아노 교수이자 피아니스트인 맨하탄음대 교수인 필립 케윈, 한국피아노음악의 대모 피아니스트 신수정,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문 연주자의 시대를 연 피아니스트 이경숙, 미국 뉴올리안즈 국제피아노콩쿠르 1위 수상자 피아니스트 주희성, 섬세한 감성으로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차세대 피아니스트 윤홍천, 일본 음악계의 대부 고이치로 하라다, 파가니니콩쿠르의 우승자로 테크닉과 음악성을 겸비한 바이올리니스트 수빈 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길러낸 바이올린계의 대모 김남운, 미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비올리스트 조엘 스미어노프,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 비올라로 세계를 사로잡은 차세대 비올리스트 이한나, 대관령 국제음악제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인 세계적인 첼리스트 정명화, 차이코프스키콩쿠르 2위에 입상한 중견 첼리스트 수렌 바그라투니, 부산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김경희, 영남대학교 교수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과 부산국제음악제 뮤직아카데미 출신의 라이징 스타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등이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Best of Best'라는 주제로 부산국제음악제가 그동안 연주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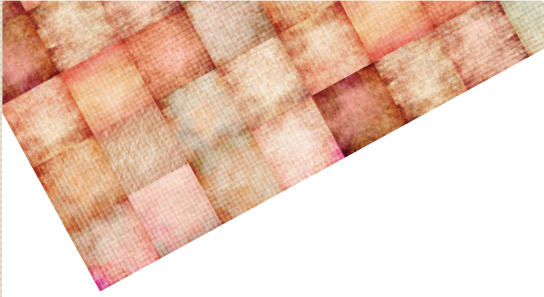
프로그램 중 가장 사랑받았던 곡(Favorite Pieces)들을 선정, 2015 부산국제음악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1월 27일 오프닝 음악회 '거장의 실내악 1', 1월 31일 '거장의 실내악 2' 무대에서 다시 한번 그 감동을 전해준다.

- 1월 2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오프닝 음악회 '거장의 실내악 1'
- 1월 2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신년음악회 '명품협주곡의 세계'
- 1월 29일, 2월 2일 신세계 센텀시티 문화홀 갈라 콘서트
- 1월 3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노부스카르렛과 피아니스트 윤홍천
- 1월 3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거장의 실내악 2
- 2월 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가족음악회

일 시 | 1월 26일(월)-2월 3일(화)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신세계 센텀시티 문화홀,
그랜드호텔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0-5833



김주원과 콰르텟 Sol의 플루트 콰르텟 연주회

음악선물

음악평론가 신 설 령

지난 12월 고은사진미술관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는 플루트 연주자 김주원과 콰르텟 Sol이 함께 했다. 연주곡은 하이든, 베토벤, 모차르트, 크리스토퍼 바흐의 곡이다. 흔하지 않은 플루트와 현악사중주단이 함께 하는 연주라 관심이 갔다. 고전주의 시대 작품들만 가지고 연주하기에는 자칫 지루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작품 속에서 서로 주고받았을 음악적 영향을 찾아보고, 대선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작곡가들을 상상하며 음악을 듣는다면 좀 더 흥미로워진다.

먼저 연주자가 곡목 선정에 대한 설명을 했다. 첫 번째 곡인 하이든의 '런던 트리오'의 경우 후원자를 만나러 가면서 선물로 가져간 음악이라고 한다. 그래서 청중에게 그 선물을 드리고자 첫 곡으로 연주하겠다고 한다. 마음이 열리는 센스 있는 멘트이다. 구성은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로 이루어졌다. 플루트와 바이올린이 멜로디 라인을 서로 바꿔가며 첼로와 호흡을 맞추어 나갔다. 음량이 상대적으로 큰 플루트와 첼로 사이에서 바이올린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조화와 배려의 덕분일 것이다.

다음 곡은 베토벤 '세레나데'로 플루트와 바이올린, 비올라가 함께 한다. 구성이 특이하다. 플루트의 음량이 좀 강한 것을 의식해서인지 베토벤은 곡사이에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이중주를 잠깐씩 넣고 있다. 이 곡에서는 흔하지 않게 비올라 연주에 무게를 두고 있고, 비올라의 화려한 연주가 눈길을 끈다. 그런데 하이든에 이어지는 베토벤의 곡 연주에서 그 시작은 하이든 향기가 낮으나 곡이 진행되면서 각 악기에 보다 많은 음표를 부여하여 그 구성은 치밀해지고 음악은 보다 깊어지며 화려해짐을 본다. 잠시 동안 베토벤의 스승이기도 했던 앞 시대 대가의 영향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베토벤을 보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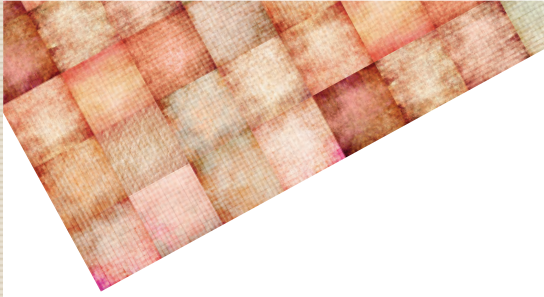
다음 곡은 모차르트의 '콰르텟'이다. 이번에는 플루트와 바이올린, 비올라, 그리고 첼로가 함께 한다. 잘 알려진 곡으로 귀에 익숙하다. 플루트를 연주하려고 애호가 위촉한 곡으로 플루트 연주가 단연 돋보인다. 이 곡은 아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로부터 잠시 멀리 떠나 자유를 누리던 모차르트가 21세 때 작곡한 곡이다. 잠시 누리던 이 자유로운 때 작곡한 작품들이 음악적 완성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마지막 곡은 J. S. 바흐의 아들인 요한 크리스토프 바흐의 작품으로 플루트와 현악사중주가 함께 하는 쾨넧트이다. 음악이 따뜻하고 아름답다. 바로크 시대 대 음악가였던 아버지 바흐의 아들임에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는 듯 아버지 음악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번 연주회는 바흐, 하이든, 베토벤, 모차르트 작품을 연주하며 실내악을 통한 고전주의 음악양식의 변화를 엿보게 했다. 또한 작곡가를 묶어두고 있는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하기도 했다. 이날의 연주회는 청중에게 좋은 음악선물을 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기분 좋은 음악회였다. 그리고 연주자가 직접 하는 해설이 깊이가 있으면서도 음악을 통한 감동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보인다.

이제 나를 돌아볼 시간이다. 나를 묶어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새롭게 한발 자국 내딛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일까? 그리고 나만의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볼 대상은 누구일까?

Review



야망이 삼킨 슬픔을 되돌려주는 다큐멘터리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영화감독 김희진

현 우리 사회는 야망이 넘쳐난다. 모든 것이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모든 슬픔이 그 성공을 향한 야망의 장막에 가려진다. 아무리 큰 아픔을 겪어도, 엄청난 고통과 상실이 찾아와도 우리 사회는 슬픔을 표현하도록 용납하지 않는다. 애도의 활동에



비판마저 가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 점점 눈물을 잃어가고 있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서민적 욕구가 보편이 아닌 특수가 되어 버리는 이 사회에서 슬픔은 이제 사치가 되거나 금기가 되어 가고 있다.

다큐멘터리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2014, 진모영)의 흥행 배경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슬픔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극장에서나마 우리가 눈물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인간이 가진 슬픔의 정서를 다시금 회복하는 느낌을 준 이 영화가 고마운 이유는 아직 세상에는 함께 눈물을 흘려 줄 동무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는 두 번의 죽음이 등장한다. '꼬마'라 불리는 흰둥이 개와 76년을 연인처럼 사랑해준 98세 남편의 죽음이다. 죽음은 아직 살아남아 있는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상실의 느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고 만지며 어루만질 수 없다는 절망감, 기억에서 사라지다 점점 잊혀갈 것이란 허망함은 죽음이라는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누구나 갖게 되는 감정이다. 하지만 이 보편적 정서를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사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가족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인식 가능한 모든 죽음에 대해 슬픔을 가진다. 아무리 악한 자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인지상정과 측은지심을 갖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 갇힌 이 시대의 느낌은 무엇일까.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관객들의 눈물은 바로 우리가 숨기고 감추어 두었던 그 눈물이 아닐까. 어두운 극장에서 비로소 흘러게 되는 그 눈물은 우리가 억지로 참았고, 눈치 보며 억압해 두고, 사회적 분위기에 표출하지 못한 그 눈물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인 슬픔의 표현이 막힌 이 시대를 다시 눈물로 적셔주는 이 영화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화에 있어 단순히 관객이기만 한 시대는 지났다. 이제 평범한 삶과 그 삶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시대다. 최근 <누구에게나 찬란한>(2014, 임유철)과 <악사들>(2014, 김지곤)처럼 영화의 주인공이 평범한 이웃이자 일반적인 주변 사람들인 다큐멘터리들이 호평을 받고 있다. 우리 삶의 보편성이 야망으로 물든 이 시대의 왜곡된 분위기로 진정성을 잃고 있기에 오히려 삶의 일반성을 되새기게 해주는 영화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영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죽음을 앞 둔 노부부의 자연적인 삶을 통해 물질문명이 아닌 자연으로서의 인간 삶을 다시금 새기게 해주었다. 결국 모든 생명은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보편성과 그에 따른 슬픔의 정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인간의 본질이다. 슬픔의 눈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프로그램
가이드

3D문화유산답사전 월출산 정상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아름다운 우리 국토

일 시 | 1월 4일(일)~3월 1일(일) 대전시실
입장료 | 일반 1만 2천원 · 학생 9천원 · 미취학아동 7천원
문 의 | 휴먼머커스 070-7617-4004, 607-6230



직접 찾아가기에는 너무나 우리나라의 국토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3D문화유산답사전. 월출산 정상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전국에 흩어져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3D문화유산답사전은 즐겁게 역사와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문화예술여행이다. 300여 개의 국보를 3D 이미지를 통해 현장감 있게 볼 수 있다.

전시구성

지역별섹션-전국에 분포한 국보를 8개도별로 관람 테마섹션-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국보는 무엇일까, 가장 큰 국보는 무엇일까 등과 같은 다양한 테마로 국보를 비교감상
분류별섹션-탑파, 굴중건축, 회화, 고분 금속 등 다양한 분류로 구성된 국보지도로 취향에 따라 감상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2015 악기가족이야기

일 시 | 1월 12일-13일 월-화요일 오전 10:30,
오후 3:30, 1월 15일-16일 목-금요일
오전 10:30, 오후 3: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어린이를 위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어린이 맞춤 프로그램 악기가족이야기 2015년 무대. 어린이들에게 오케스트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눈높이에 맞춰 오케스트라 악기의 종류와 기능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오케스트라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주기 위해 기획된 '악기가족이야기'는 현악기, 금관악기로 나누어 흥미를 유발하는 연극과 쉽고 재미있는 연주, 악기 및 연주자에 대한 질문과 응답, 악기 체험 등으로 구성, 어린이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연기를 선보이는 뮤지컬 컴퍼니 끼리프로젝트는 연극을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러왔다.

|프로그램|

악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 바이올린가족 이야기 '편식하지 않아요'
- 나팔가족 이야기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요'
악기야, 너는 누구니?
- 종류별 소리를 비교하며 악기 설명

연주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요
- 악기 및 연주자에 대한 질문과 응답
음악을 들어봐요
- 클래식 명곡 중심 선곡
악기를 만져봐요 (퇴장하면서)
- 직접 만지며 체험

일정

1월 12일-13일 월-화요일 오전 10:30, 오후 3:30 피자 피자 바이올린가족 이야기
1월 15일-16일 목-금요일 오전 10:30, 오후 3:30 뽀우 뽀우 나팔가족 이야기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팀 (바이올린 가족/배아름, 권순지, 성정인, 김동미, 나팔가족/박승훈, 김용건, 안혜빈, 박동혁, 조상혁, 이희정)
• 연기/뮤지컬 컴퍼니 끼리프로젝트(연출/변진호)



부산 영뮤직 페스티벌

일 시 | 1월 12일 월요일, 14일-16일 수-금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음악춘추사 02-2231-9001
부산 음악자료창고 582-9143

차세대 음악도를 꿈꾸는 유망주들의 등용문인 음악춘추사 주최 부산 영뮤직 페스티벌.

12일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작품 53, 소나타 작품 27
쇼팽/스케르췌 제2번 내림나단조 작품 31
시벨리우스/바이올린협주곡 라단조 작품 47 3악장
슈만/환상소곡집 작품 12 등 수곡
• 연주/윤자빈(부산예고2), 권혜은(김해보성여고3), 장수인(계명대2), 이사민(울산대2), 신수지(인제대3), 손지은(동덕대4), 김진태(경성대3), 이은영(신라대4), 주효연(울산대 대학원2), 박송이(숙명여대 입학예정), 김창현(전남대4)

14일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제18번
라흐마니노프/프렐류드 올림나단조 작품 3
쇼팽/스케르췌 제1번, 소나타 작품 58
리스트/발라드 제2번 나단조 등 수곡
• 연주/최석원(부산예고1), 장서연(부산여자상업

고), 성진술(경남예고3), 권아현(경성대4), 김동휘(마산중앙고2), 김현정(동의대4), 김유진(신라대4), 김예림(울산대2), 김계리(경성대4), 나윤채(부산대4), 이기은(부산대2)

15일 프로그램

슈베르트/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멘델스존/룬도 카프리치오 작품 14
이수인/고향의 노래
임궁수/강남네 봄이오듯 등 수곡
• 연주/권예진(부산예중1), 김인아(부산예중2), 도유화(부산예중2), 백민정(부산예중2), 박사라(부산예고1), 문가영(부산예고1), 윤소연(거제여중3), 전성아(부산예고2), 김혜승(부산예고1), 손안지(부산예고2), 설윤정(부산예고2), 이혜진(경혜여고1), 김보영(부산예중2), 양효경(삼정고2)

16일 프로그램

이순형/장미꽃이야
모차르트/소나타 K. 310
클레멘티/소나티네 작품 36
쇼팽/화려한 변주곡 작품 12 등 수곡
• 연주/이서연(유치원생), 정민경(영화초5), 장해교(금강초2), 한현주(동래초2), 이정윤(해화초3), 이윤희(장서초4), 윤정빈(동래초5), 남연수(정관초3), 박제인(Busan Foreign School6), 강유빈(진주신진초6), 박세범(상당초4), 김소영(중현초5)

조미혜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월 13일 화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조미혜 010-9188-9125

인디애나대학교, 노스웨스턴대학교, 워싱턴대학교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한 피아니스트 조미혜의 귀국 독주회. 대학원생 교육조교 전액장학금, 윌리엄 반즈, 로이 버스커 기념장학금, 음악대학 학장 장학금 (Music Dean's Award), 피아노전공 우수학생 장학금 (Dean's Lists Awards) 등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한 조미혜는 워싱턴대학교, 노스웨스턴대학교, 인디애나 대학교 연주회, 자선음악회,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바흐/영국모음곡 제2번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작품 110
슈만/다비드 옹명무곡 작품 6 등 수곡



Program Guide >>

루비셀 사랑나누기 자선모금

2015 부산, 서울 신년 음악회

일 시 | 1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주)루비셀 010-9172-5552

장근미 010-9784-0823

...



지역 사회에서의 문화예술 나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주)아프로존 루비셀의 사랑나누기 신년음악회, 손명균이 지휘하는 부산내 서늘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부산 연주회는 신이 내린 목소리 팡페라 카운터 테너 정세훈,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소프라노 오희진, 테너 박광하의 협연 무대,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단 솔리스트로 활동한 부산출신의 세계적인 발레리노 김용걸의 특별 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 쇼스타코비치/축전 서곡
- 이수인/내맘의 강물
- 쿠르티스/나를 잊지마오
-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등
- 예술 총감독/장근미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빈-베를린 브라스 퀸텟 내한공연

일 시 | 1월 17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7

...

세계적인 교향악단인 비엔나 필하모닉과 베를린 필하모닉 수석 관악주자들이 구성된 빈-베를린 브라스 퀸텟이 들려주는 2015년 신년음악회, 유럽과 미국에서 금관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과 함께 청중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빈-베를린 브라스 퀸텟(Wien-Berlin Brass Quintet)'은 베를린 필하모닉오케스트라 트럼펫 수석인 Gabor Tarkovi와 부수석인 Guillaume Jehl, 베를린필하모닉 튜바 수석인 Alexander von Puttkamer, 호른 수석인 Thomas Jobst와 비엔나 필하모닉 트럼본 수석 Dietmar Kublbock 등 총 5명의 연주자들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쳐왔다.

2015년 2월 음반 출시를 앞두고 첫 내한 공연을 갖는 '빈-베를린 브라스 퀸텟'은 부산연주회에 앞서 1월 16일 서울국제음악제 개막공연으로 국내 음악애호가들에게 매력적인 브라스 앙상블로 희망찬 신년을 열어준다.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금관악기의 매력을 물론 느낄 수 있는 바흐의 푸가와 말콤 아놀드의 브라스 퀸텟,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느 작품번호 50번 등 금관악기

만의 웅장하고 현란한 연주를 부산음악 애호가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 바흐/푸가
- 말콤 아놀드/브라스 퀸텟
- 뿔랑/브라스를 위한 프랑스 모음곡
- 포레/파반느 작품 50
- 피아졸라/리베르탱고, 밀롱가
- 빅토리 에발트/Symphony for Brass Choir 제1번
- 작품 5 등 수곡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5 빈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New Year's Concert

일 시 | 1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8)

...



요한 슈트라우스 스페셜리스트인 페터 구트(Peter Guth)가 창단한 빈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Strauss Festival Orchestra of Vienna 이하 SFOV)가 선사하는 밝고 아름다운 희망의 선율 'New Year's Concert'.

1978년 창단, 3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빈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빈 출신 음악인들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전통적인 고전음악에서부터 빈의 상징인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 등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전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부산 무대에서는 '빈이 배출한 현대의 음악가로 불리는 페터 구트가 수석주자와 지휘를 겸해 한

손에 바이올린을 들고 직접 연주하면서 지휘를 겸하는 특색 있는 연출을 보여준다. 협연자로는 이태리 PESCARA콩쿠르 우승, M. GIORGIO콩쿠르에 입상하고 다양한 무대 활동을 펼쳐온 백석예술대학교 김은경 교수가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요한 슈트라우스 2세/트리치 트라치 폴카, 봄의 소리 왈츠, 황제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크라펜의 숲 속에서, 사냥터의 폴카

요한 슈트라우스 1세/청년의 열정
요제프 슈트라우스/대장간 폴카
에두아르트 슈트라우스/주저없이 빠른 폴카
칼 마하엘 치러/밤의 몽상가 왈츠
루이지 아르디티/입맞춤 등 수곡

- 지휘/페터 구트
- 소프라노/김은경



오키나와 문화프로젝트

류큐문화선(Ship of The RYUKYU)

류큐의 바람-타마구스쿠류 교쿠센카이

오키나와 춤과 무용

일 시 | 1월 20일 화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컬처버스 032-865-5474

...

풍요로운 대자연에 둘러싸인 오키나와의 춤과 무용을 만날 수 있는 오키나와 문화프로젝트 '류큐문화선(Ship of the RYUKYU)' 부산 공연, '류큐문화선(Ship of the RYUKYU)은 선장(캡틴)인 연출가들 아래 젊은 실력파 무용수, 배우들을 선원으로 하는 오키나와 문화프로젝트로, 세계를 누비며,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오키나와의 진정한 예술문화를 전하기 위해 부산에서 그 첫 항해를 시작한다.

'타마구스쿠류 교쿠센카이'는 타마구스쿠 가문의 초대 당주인 '타마구스쿠 세이키'가 1945년 류큐무용연구소를 설립한 후, 1952년 '타마구스쿠 세이키 무용연구소'를 교쿠센카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프로그램

- 제1장 <요즈다케 (四ッ竹(よつだけ))>
- 제2장 <젊은이들의 제이 若衆ゼイ(わかしゅぜい)>
- 제3장 <카세카케(카시카케) かせかけ(かしかけ)>
- 제4장 <타카데-라만자이 高平良万.(たかで,らまんざい)> 등

프로그램
가이드

제1164회 MBC 목요일음악회
코랄하우스 남성축제합창단
행복한 남성들의 즐거운 합창

일 시 | 1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코랄하우스 남성축제합창단 010-4183-2293

...
2010년 부산합창발전을 꿈꾸며 발족한 (사)송인문화재단(이사장 변원탄)에서 2011년 의욕적으로 기획한 남성합창단 코랄하우스 남성축제합창단의 2015년 무대 '행복한 남성들의 즐거운 합창'.
매해 신년이 되면 남성합창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연주회를 가지는 1회성의 축제합창단으로 무대에 오르는 코랄하우스 남성축제합창단은 최초 100여 명의 단원을 꿈꾸며 시작했으며 작년까지 지난 3년간 매년 80여 명 정도가 모여 부산문화회관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올해는 제1164회 MBC 목요일음악회 주최로 웅장하고 매력적인 남성합창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한 해를 향한 기도/ It is Well with My Soul
한국창작합창/세노아(김동환 편곡), 고향의 노래(이수인), 웅해아(이영조 편곡)
남성중창/그대 눈 속의 바다, Brothers Forever, 소나무
오페라, 뮤지컬 합창/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오페라 '나부코' 중), 여자의 마음(오페라 '리골렛토'

중, 백현주 편곡), 지금 이 순간(뮤지컬 '지킬과 하이드' 중, 백현주 편곡)
다시 희망으로/행복의 나라로(한태수 곡, 백현주 편곡), 내 나라 내 겨레(송창식 곡, 백현주 편곡), 다시 일어서리(We Rise Again, L. Dubinsky)

영화 '냉정과 열정사이' 중 'The Whole nine yards'
피아졸라/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중 '봄'
• 지휘/김강규
• 피아노/권준
• 특별연주/비르투오조 트리오(Vn. 백재진, Vc. 정준수, Pf. 권준)
• 남성중창/천마남성중창단(피아노/최명주)



부산시립무용단
2015 우리춤 산책

일 시 | 1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31

...
한해를 시작하는 1월, 부산시립무용단이 매년 첫 무대로 선보이는 우리춤 산책 2015년 무대. 우리춤 산책은 우리 춤의 전승 보급에 힘쓴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이 정기공연과 창작 무대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우리 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사풍정감(土風情感)(춤/황동하)
화전태(춤/이현숙)
이매방류 장고춤(춤/김주연)
한영숙류 태평무(춤/이현주)
임이조류 한량무(춤/장래훈)
검무(춤/김주영)
양태옥류 진도북놀이(춤/김진영, 박상용, 허태성)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7회 정기연주회
2015 신년음악회

일 시 | 1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 5천원 ·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
2014년 제야음악회 무대로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희망의 선율을 선사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15년 첫 무대 '2015 신년음악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지휘자를 맡은 바 있는 러시아 출신의 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객원지휘자로, 부산출신의 라이징스타 김재원이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오랜만에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아니시모프는 현재 아일랜드 RTE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명예 지휘자이자, 벨로루시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및 로스토프-온-돈 오페라단 수석지휘자로 재직 중이

다. 김재원은 2014 독일 Frankfurt Young Artist 국제콩쿠르 1위, 2013 홍콩 Schonfeld 국제콩쿠르 입상, 2012 이탈리아 Lipizer 국제콩쿠르 최연소 2위 입상 및 청중상을 수상, 2009 독일 Kloster Schöntal 국제콩쿠르 최연소 입상 및 Virtuoso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중 한사람인 차이코프스키의 명곡으로 신년의 환희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탈리아 기상곡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인형 모음곡
차이코프스키/환상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바이올린/김재원



남구 문화원 오록도무용단 첫 번째 무대
낙화유수

일 시 | 1월 23일 금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오록도무용단 010-5449-0559

...
남구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여성무용단인 남구문화원 소속 오록도무용단의 정기발표회. 그동안 우리 한국춤을 익히고 갈고 닦으며, 지역 단체에 문화봉사를 펼쳐온 오록도무용단은 남구의 대표행사인 달맞이축제, 오록도축제 등에 매년 출연하며 흥겨운 우리 춤을 선사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황지인의 연출로 검무, 살풀이, 장고춤, 태평무, 산조, 사랑가, 한량무 등을 선보인다.
• 연출/황지인
• 특별출연/이태영(판소리)
• 출연/윤여준, 진선자, 나향숙, 박분자, 천희정, 허정희, 배해경, 이옥수



Program Guide >>

부산문화회관기획공연 가덕 신공항 건립 성공기원 세계음악 디스커버리

WORLD CLASSIC DISCOVERY 러시아

일 시 | 1월 24일 토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www.bso21.com)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공모작으로 선정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세계음악 디스커버리 첫 번째 무대 '러시아'.
 음악회와 여행을 결합한 '세계음악 디스커버리'는 음악회장을 공방으로 설정, 실제 공방에 도착해서 출국하기까지의 과정과 동일하게 여권(팝플렛), 탑승권(티켓), 입국심사(공연스탬프), 면세점(홍보물) 등을 경험하면서 작지만 차별화된 생각으로 음악과 문



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을 위한 음악회로 1년간 총6회의 무대가 펼쳐진다.
 러시아로 떠나는 첫 무대에서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차이코프스키, 쇼스타코비치, 스키리도프, 하차투리안, 라흐마니노프, 림스키코르사코프, 무소그스키의 음악으로 러시아 음악여행을 떠난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로미오와 줄리엣 서곡,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2악장, 교향곡 4번 F단조 작품 36 4악장, 발레모음곡 '백조의 호수' 중 '정경' '스페인 춤', 발레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중 '중국 춤' '러시아 춤'
 쇼스타코비치/재즈모음곡 제2번 중 '왈츠' 스키리도프/모음곡 '눈보라' 중 '왈츠' '로망스' 하차투리안/모음곡 '가면무도회' 중 '왈츠' 라흐마니노프/교향곡 제2번 E단조 작품 27 3악장 림스키코르사코프/교향적 모음곡 '세헤라지드' 작품 35 1. 바다와 신밧드의 배 무소그스키/전람회의 그림 중 '뉘발 위의 오두막' '키예프의 대문'

- 예술감독/오충근(지휘)
- 협연/양경아(바이올린)
- 해설/류태형(음악칼럼니스트)

갈멜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월 24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갈멜합창단 010-8005-3587

...
 1972년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이루어진 갈멜합창단 동문들로 결성된 갈멜합창단 정기연주회.
 갈멜합창단은 창단 그해 4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각지의 교회순회헌양, 소록도 위문공연, 고아원 봉사, YMCA 요정의 축제, 군위문공연, MBC 낙동강 살리기 캠페인, KBS 전국합창대회 본상 등 30여 년 동안 합창을 통해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희망과 사랑, 행복을 나누어 주었다. 지금의 갈멜합창단은 청소년시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국내각지의 합창단 단원으로, 후진을 양성하는 전문음악인으로, 합창지휘자로, 또 세계가 주목하는 성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갈멜합창단 동문 40여 명이 모여 재창단한 합창단으로 갈멜합창단의 부활을 꿈꾸며 열정 넘치는 사랑의 선율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성가곡 기억하소서, 분향을 향하네, 주의 동산으로, 님이 오시는지, 옛날은 가고 없어도, 저구름 흘러 가는 곳, 그 겨울의 찻집, 해후, 영화 닥터지바고 중 라라의 테마 Somewhere My Love 등 수록
 • 지휘/구영립 • 편곡/최석태
 • 반주/이수민, 김다연

2015 제10회 부산국제음악제 10주년 기념 Favorite & Revisited

일 시 | 1월 26일-2월 3일 월요일-화요일
 부산문화회관, 신세계 센텀시티 문화홀, 그랜드호텔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부산국제음악제 740-5833

...
 세계적인 스타연주자들의 패기와 열정, 관록과 여유가 묻어나는 명 연주로 최고의 감동을 선사해온 부산국제음악제 2015년 축제.
 아시아 최고의 클래식음악축제를 지향하는 부산국제음악제(예술감독/백혜선)는 국내 유일의 최장수 민간 주도형 국제음악제로 실내악의 짜릿한 묘미와 감동을 주는 명품음악축제로 호평 받아왔다.
 10주년을 맞는 올해는 2015년 예술감독 백혜선을 비롯해 세르게이 비바얀(줄리아드음대 및 클리블랜드음대 교수), 필립 케윈(맨하탄음대 교수), 이경숙(연세



대 명예교수), 신수정(서울대 초빙교수), 주희성(서울대 교수), 윤홍천(재독 피아니스트), 김남윤(한국예중교수), 고이치로 하라다(거장 바이올리니스트), 김수빈(미국 뉴잉글랜드음악원 교수), 조엘스미어노프(클리블랜드음악원 총장), 수렌 바그라티니(미시간음대 교수), 정명화(한국예중 명예교수) 등이 부산을 찾는다.

■ 축제음악회 일정 및 프로그램
 1월 27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오프닝콘서트 거장의 실내악 1(Best of Best)
[프로그램]
 바흐/사콘느 제2번 라단조, BWV1004 베토벤/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트리오 라장조 작품 70 제1번 'Ghost' 브람스/피아노 4중주 제1번 바단조
 • 연주/백혜선, 김수빈, 이한나, 수렌바그라티니

1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국제음악제 신년음악회 명품협주곡의 세계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4번 라장조 K. 218 베버/클라리넷 협주곡 제2번 내림마장조 작품 74 프로코피예프/피아노협주곡 제2번 사단조 작품16
 • 연주/임지영, 채재일, 세르게이 비바얀

1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노부스과르렛과 피아니스트 윤홍천
[프로그램]
 드블작/현악4중주 제12번 바장조 작품 96 'American' 멘델스존/현악 4중주 바단조 작품 80 슈만/피아노 5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4

1월 31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거장의 실내악2(Best of Best)
[프로그램]
 슈베르트/세개의 피아노소품 D 946 드블작/피아노 5중주 가장조 작품 81 차이코프스키/현악 6중주 '피렌체의 추억' 라장조 작품 70
 • 연주/필립 케윈, 주희성, 고이치로 하라다, 김수빈, 김동욱, 조엘스미어노프, 이한나, 정명화, 문용휘

2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가족음악회
[프로그램]
 슈베르트/소프라노,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바위 위의 목동'
 R. 슈트라우스/ 첼로스나타 올림바단조 작품 6
 • 연주/정명화, 김남윤, 주희성, 채재일, 소프라노 김경희, 윤홍천, 김남윤과 바이올린 오케스트라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 (공연 30분 전 입장, 7세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2



1월 3일

재즈 밴드 러브레터
러브레터가 전해주는 겨울...
따뜻한 감성의 재즈

국도 레코드 초청 공연, 제2회 명지 파크 콘서트 2012 제야음악회, kbs 부산 'tv 문화속으로' 갤러리 음 초청 공연, 소니아트센터 초청 공연 부산 국제 영화제 전야제 축하 공연, '러브레터가 들려주는 재즈 이야기' 공연, 재즈 클럽 monk 정기 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 온 재즈그룹 러브레터의 무대.

[프로그램]

route 66, tristeza love, our love is here to stay
우울한 편지,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moon river, yesterdays, more than you know,
sway

• 연주/최은아(리더), 최창근(sax), 김상수(P), 박재훈(b), 곽영일(dr)

1월 10일

해피양상블 JOY 콘서트

이태리, 독일 러시아 등지에서 해외 유학을 마친 남성 성악가로서 현재 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초빙 교수 및 외래교수들로 구성된 해피양상블 초청공연.

[프로그램]

안익태/애국가
R. Wagner/우정의 노래
R. Rodger 여자보다 귀한 것 없네
베르디/축배의 노래
러시아 민요/백학
해피양상블 편곡/CM송 메들리
해피양상블 편곡/동요 메들리

해피양상블 편곡/1분 아리아 폰트 메들리
윤지현 편곡/이문세 히트곡 메들리
뮤지컬 시스터엑트 중 '오 해피데이' 등 수록

• 연주/테너 1 : 이홍길, 황성학, 허동권
테너 2 : 이승우, 우원석, 조동훈
바리톤 : 고정현, 김대상, 장진웅, 베이스
김정대, 박상진, 안세범
소프라노 이지은

• 피아노/안선애



1월 17일

**이크 택견
비각(날아오르는 발길질)**

한국인에게는 지루한 '전통'을 강조한 기존공연과는 다르게 택견과 현대에 각광받는 트리킹과 팝핀을 융합한 이크택견의 비각. 서구의 악기로 한국의 음색을 연주하여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체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인트로

오케스트라, 북, 택견, 팝핀, 트리킹의 화려하고 웅장한 '두드림'으로 시작이 된다

각시탈의 등장

택견영웅으로 유명한 '각시탈'이 팝핀을 하며 관중의 이목을 모은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춘 택견퍼포먼스가 시작된다. 각시탈의 유물인 '대금'을 차지하기 위한 난자와의 격렬한 맨몸 무예가 진행된다.

현대로 온 각시탈

승리한 줄 알던 각시탈이 총에 맞고 쓰러진다. 쓰러진 각시탈이 현대로 오게되며 현대에 적응하는 모습을 그린다.

사랑에 빠진 각시탈

현대에도 정의로운 각시탈의 모습을 보여주며, 각시탈은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알고보니 현대의 여인도 뛰어난 택견꾼이며, 악당들을 함께 물리친다.

커튼콜

출연진들의 개인기와 앞서 보여준 줄거리를 압축하여 새롭게 탄생시켜 선보인다.

• 출연/박신영(대표, 국가대표택견시연단), 안형수(부대표, 국가대표택견시연단), 이주영(기획책임자, WTF시범단), 이은섭(대외협력팀장), 이진우, 이희태, 김동진(이상 택견전공자), 임재현(음악제작), 임지혜, 박신희, 강지현, 이태성(이상 연주, 송파오케스트라 단원)



1월 24일

부산시립합창단

...

[프로그램]

흑인영가[편곡 Robert Latham]

- Swing Low, Little David, Play on your harp,
Were you there?, Deep River

미국 민요 [편곡 Gwyn Arch]

- Some Folks, Camp town races, Dixie, Oh!
Susanna, Polly wolly doodle

오페라 합창 [편곡 Gwyn Arch]

- Lascia ch'io pianga (오페라 Rinaldo 中),
Ombra mai fu (오페라 Seres 中), Voi che sapete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식 中), La verdine degli angeli (La forza del destino 中)

• 지휘/오세종(수석지휘자)

• 피아노/이경미

1월 31일

부산시립무용단

...

[프로그램]

차용무(출연/박상용(부수석), 이성원, 이정식, 강모세, 김윤호)

장고 II (출연/김도은, 김시현, 박미나)

동래학춤(출연/김병주)

경고춤(출연/정진희, 김미란)

소고춤(출연/김공주, 허태성)

진도북춤(출연/이현정, 박창희, 최의옥, 장영진)

• 안무 · 구성/홍경희(예술감독)

• 훈련지도자/서정숙

Program Guide >>

음악

Space UM '차가 있는 음악회'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 음

입장료 | 균일 1만원(음료 포함)

문 의 | 스페이스 음 557-3369

...

북합문화공간 Space UM이 매주 목요일 저녁 마련하는 '차가 있는 음악회' 1월 무대.

2일 부산리더스플루트앙상블 '2015년 새해맞이 신년음악회'

부산, 경남지역의 플루트 문화 활성화를 위해 창단된 부산리더스플루트앙상블 2015년 신년음악회.

11번째 정기연주회를 겸한 이번 무대에서는 미국 린치 윌슨대학교 인문예술학부 음악감독 및 교수로 재직 중인 조완수의 지휘, 미국 듀크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고 엘리트 챔버콰이어, 페스티벌 싱어즈,



천국의 숨결 트리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소프라노 Maggie Colman의 협연으로 새해의 기쁨을 노래하는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9일 소프라노 왕기현&테너 이철성 'Duo Cocert'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로 유럽 극장 데뷔 후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소프라노 왕기현과 엔리소 카루소 국제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해 화제를 모은 테너 이철성의 듀오 무대.

•반주/김경미

15일 더 콰르텟과 함께하는 '하이든&라벨'

경북도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나영,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부산대학교 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이명환,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비올리스트 윤술샘,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첼리스트 박예리나로 구성된 더 콰르텟의 무대.

|프로그램|



하이든/현악 4중주 라장조 작품 64 '종달새'
라벨/현악 4중주 바장조

22일 아이네플루트앙상블 '플루트와 국악의 멋스러운 만남'

지난 1997년 12월, 경남 최초로 플루트 전공자들 로만 결성되어 화제를 모은 아이네플루트앙상블이 귀에 익은 클래식 명곡과 함께 우리민요 아리랑을 거문고와 해금 협연으로 들려준다.

•음악감독/김영

•단원/이은국, 천예원, 이영진, 김동연, 정소진, 최하나, 조혜영

•해금/정소레

•피아노/김수현

•베이스/조영훈

•거문고/이임민

•첼로/서인우

•드럼/김건우

29일 음악대륙 가이아 1집 발매 기념 preview 콘서트

부산대학교 국악학과를 졸업한 젊은 국악연주자들로 결성된 퓨전 국악실내악단 '음악대륙 가이아'가 1집 음반 발매를 기념해 마련한 프리뷰 콘서트.



2015년 마티네콘서트 피아니스트 박종훈의 '올 댓 뮤직'

일 시 | 1월 13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



정통 클래식 음악은 물론 재즈,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새로운 시도를 통해 클래식 음악계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활약 중인 피아니스트 박종훈이 진행하는 2015년 마티네 콘서트 '올 댓 뮤직'. 연주자에서 최근 드라마 연기자, 방송 MC 등 팔색조 같은 변신을 선보이며 매력을 선사해온 박종훈의 재치있는 입담과 진행으로 클래식에서부터 가요, 재즈, 탕고 등 세상에 있는 모든 음악을 만나본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공연 국립부산국악원과 합동 신년음악회

일 시 | 1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3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국립부산국악원이 올미년 새해를 맞아 합동으로 마련한 2015년 신년음악회. 국립부산국악원이 펼치는 1부 무대 전통음악과 춤에 이어 2부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작음악으로 화려하면서도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지휘/권성택(1부, 국립부산국악원 예술감독 권성택), 김철호(2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협연/방병원(해금), 박성희(민요), 정선희(민요), 이상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김미진, 신진원(민요, 국립부산국악원 단원)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초청공연 2015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일 시 | 1월 17일 토요일 오후 7:00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문 의 |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20

...



520여 년 역사와 오스트리아 황실의 전통을 자랑하는 빈 소년 합창단 2015 신년음악회.

1498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막시밀리안 1세 황제의 칙령으로 조직되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빈 소년 합창단은 세계적인 작곡가 슈베르트와

하이든이 합창단원으로서 활동하고, 베토벤이 직접 반주, 바그너, 리스트, 요한 스트라우스 등이 자신의 곡을 헌정하기도 한 전통 깊은 합창단으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빈 국립 오페라단과 함께 빈 궁정악단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978년 첫 내한 공연 이후 수많은 한국 공연으로 대중들과도 친숙한 빈 소년 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중세 교회음악, 왈츠, 세계 각국의 민요, 영화음악 등 다양한 음악들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가이드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2015 신년음악회**

일 시 | 1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0만원 · 로얄석 8만원
 S석 6만원 · A석 4만원
 문 의 | 장진규 010-3423-4790

●●●
 소년의 집, 구세군 보육시설, 결손가정 등 문화적, 지역적 소외계층 출신의 재능있는 연주자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창단된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2015 신년음악회', 90년 역사의 프록코피에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동양인 최초 출신 외국인 지휘자로 임명된 지휘자 박성민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새해의 희망을 노래하는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총감독/박성원(부산대학교 교수)
 • 악장/백재진(동의대학교 교수)
 • 협연/김서연(바이올린), 정태성(테너)



글로벌 신에음악회

일 시 | 1월 24일 토요일 오전 11: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글로벌공쿠르 장학재단 기금 마련)
 문 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
 국제 수준의 어쿠스틱 음향 연주출인 글로벌아트홀이 차세대 젊은 음악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아심차게 기획한 글로벌 신에음악회, 글로벌 신에음악회는 신인 음악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연주실력을 향상시키고 관객들에게 이름을 알리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글로벌 행복음악회

일 시 | 1월 25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글로벌공쿠르 장학재단 기금 마련)
 문 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
 국제 수준의 어쿠스틱 음향 연주출인 글로벌아트홀이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마련하는 상설무대 글로벌 행복음악회, 그동안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무대에 올려온 글로벌 행복음악회는 2014년 마지막 무대에서 관객과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2015 제10회 부산국제음악제
갈라콘서트**

일 시 | 1월 29일 목요일 오후 2:00
 신세계 센텀시티 문화홀
 문 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0-5833

●●●
 세계적인 스타연주자들의 패기와 열정, 관록과 여유가 묻어나는 명연주로 최고의 감동을 선사해온 2015년 부산국제음악제 갈라콘서트.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일 시 | 1월 29일 목요일 목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복합문화공간 무지크바움이 마련하는 살롱음악회 2015년 첫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석사)을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심신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이명환, 경희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신나래가 함께한다.

[프로그램]
 바흐/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전악장
 프록코피에프/두대의 바이올린 소나타
 사라시테/나바라 등



연극

코미디극 러브 인 매직

일 시 | 4월 30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7:00
 일 · 공휴일 오후 3:00, 5:00
 경성대 신나는 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재단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경성대 신나는 극장 1800-5567

●●●
 '허둥9단' 개그맨 허동환이 직접 연출, 출연하는 '러브 인 매직'은 기존 틀에서 벗어난 옴니버스 형태의 빠른 진행으로 관객들과 함께 연기하는 생방향 공연이 특징이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두근거리는 사랑을 소재로, 포복절도 개그와 함께 환상적인 마술쇼가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소극장의, 소극장을 위한, 소극장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개그 공연이다.



콘서트뮤지컬 언제나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일 시 | 2014년 10월 18일(토)-2015년 1월 25일 (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 · 공휴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부산문화재단 정기회원 평일 12,900원, 주말 14,900원)
 문 의 | (주)문화락 1600-1602

●●●
 10년 동안 한 사람을 그리워해온 남자 태양과 10년 동안 한 사람을 마음에만 품어온 여자 두나, 그리고 친구의 첫사랑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해온 두나의 소꿉친구 만식과 제니 등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주는 두 쌍의 연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 뮤지컬.
 • 작 · 작사 · 작곡 · 연출/김인



Program Guide >>

뮤지컬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 시즌 3**

일 시 | 2014년 11월 7일(금)~2015년 4월 2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디코스극장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문 의 | 아트레볼루션 010-9273-0711,
 cafe.daum.net/Art-Revolution

...



말 잘 듣고 이쁘던 큰 딸에서 구박당어리로 전락한 초등학교 교사 노처녀 강희와 텔레파시 초능력자 인터넷 설비기사 힘찬의 따뜻한 판타지 로맨스극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

이 시대의 남녀라면 결혼을 앞두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들,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사랑만으로 함께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 연출/박정우
- 출연/손아영, 김유라, 채민수, 김범수, 정중욱, 김가영, 박다숨, 박준성

맛있는 뮤지컬 **사랑의 모히또**

일 시 | 2014년 11월 7일(금)~2015년 2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용천지탈스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



재개발로 모두가 떠나버린 동네에 고집스럽게 남아있는 카페사장 기원, 자신에게 사랑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컵테일을 만들 수 있는 마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원과 그의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사랑의 모히또'.

극 속에 등장하는 컵테일 '모히또'는 '마법을 걸다', '마법의 부적'이라는 뜻을 지닌 'Mojo'라는 스페인어에서 유래된 말로,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비로운 매개체로 그려진다.

- 작·연출/오세준
- 작곡/김수진

연극 **라이어 그후 20년**

일 시 | 2014년 11월 14일(금)~2015년 1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 균일 3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주)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



코미디 연극의 보증수표로 자리잡은 연극 '라이어' 시리즈 2탄 '라이어 그후 20년'.

'라이어' 1탄의 주인공 존 스미스의 20년 후를 그린 작품으로, 극중에서 주인공은 20년의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메리

와의 사이에서 딸 비키를, 바바라와의 사이에서 아들 케빈을 둔 40대 가장 존에게 또 다시 찾아온 정체절명의 위기, 자신의 아이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면서 2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탄로날 위기에 처한다.

다시 시작되는 거짓말과 대반전이 관객들에게 설 새로운 웃음을 선사한다.

매직몬스터 **World Class Magician**

일 시 | 2014년 12월 9일(화)~2015년 1월 11일(일)
 화요일 오후 7:30, 수-금요일 오후 5:00,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MBC 삼주아트홀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문 의 | MBC삼주아트홀 1566-3651,
 www.mbc3amjooart.com

...



국가대표 매지션이자 일루션니스트인 이은결이 연출한 전 세계 탑클래스 매지션팀 'World Class Magician'이 펼치는 매직 콘서트.

기발하며 창의적인 액트로 매번 마술계를 놀라게 한 미국의 유명 매지션 대니 쿨, 마술사들의 월드컵

FISM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수상한 매니플레이션(손기술을 이용한 마술)의 1인자 미네무라 켄지, 수려한 외모와 화려한 퍼포먼스를 겸비한 미녀 매지션 카탈린 등 세계 정상급 매지션들의 무대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콘서트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일 시 | 2014년 12월 23일(화)~2015년 1월 2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예노스극장**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12,900원, 주말 14,900원)

문 의 | (주)문화락 1600-1602

...



뒤편 참견해야 직성이 풀리는 수다남에서부터 사사건건 잘난 척하는 수상한 여자 김봉자, 무대공포증에 걸린 소심한 가수까지 한 카페에서 만난 여섯 남녀의 유쾌한 사랑이야기 '우연히 행복해지다'.

지난 2007년 초연 당시 드라마와 콘서트의 이색 조합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콘서트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는 탄탄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노래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 출연/고유미, 공은주, 김정호, 김여중, 엄선영, 정영아, 강성수, 정승희, 김혜령, 최은지, 방보용, 최우상

연극 **내 사랑 은경씨**

일 시 | 1월 7일(수)~3월 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12,900원, 주말 14,900원)

문 의 | (주)문화락 1600-1602

...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이 시대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정년퇴직 후 벌어지는 부부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내 사랑 은경씨'.

평범한 부부에게 남편이 정년퇴직하면서 가정에 변화가 생긴다. 남은 인생 자신을 위해 고생한 아내에게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 남편, 60대 가장이 준비한 20대들이나 하는 귀여운 이벤트에 크고 작은 오해와 다툼이 생긴다.

연극 '내 사랑 은경씨'는 30년을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이 시대의 아버지가 갑자기 가정적인 아버지로 돌아오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정감 넘치게 그려내면서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 출연/엄창완, 허진, 심보람, 안지환, 이아름, 허민경

프로그램
가이드

연극 **연애의 목적**

일 시 | 1월 8일(목)~3월 8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2/18일,
2/20일 오후 3:00, 6:00, 2/19일 오후
6: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극 '옥탑방 고양이'를 쓴 박은혜 작가의 신작으로, 한 남녀가 서로 다른 연애의 판타지와 현실 사이에서 연애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연극 '연애의 목적'.

핑퐁처럼 시종일관 주고받는 솔직 과감하고 불꽃튀는 대사들로 아슬아슬함과 코믹함 사이를 넘나들며 경쾌한 리듬으로 연애를 논한다.

- 작/박은혜
- 연출/장우진

연극 **애정빙자 사기극**

일 시 | 1월 8일(목)~3월 29일(일) 오후 5:00,
8:00(2/18일, 2/20일 오후 5:00, 8:00,
2/19일 오후 5: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사랑에 치진 이들에게는 위로를, 사랑을 막 시작한 이들에게는 공감을, 사랑을 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더없이 달콤한 연애세포를 깨워줄 연극 '애정빙자 사기극'.

6년을 만나고 헤어진 남자 친구를 되찾기 위해 다소 엉뚱하고 황당한 거짓말을 하며 고군분투하는 여주인공의 감직한 공공이를 그린 이번 작품은 '전생'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통해 비슷비슷하다고 여겨지는 로맨티코미디에 신선함을 더하고,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스릴만점의 다이내믹한 스토리 전개를 이어나간다.

연극 **발칙한 로맨스**

일 시 | 1월 9일(금)~4월 1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7:00(2/18일,
2/20일 오후 4:00, 7:00, 2/19일 오후
4: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대한민국 예능계를 종횡무진하는 예능의 신 김수로와 SNL코리아의 치명적 매력남 김민교의 발칙한 상상력으로 탄생한 섹시 발랄 코믹극.

15년 전 고교시절의 순수한 첫사랑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수지와 봉필. 수지와 이별 후, 봉필은 할리우드로 건너가 세계적인 영화감독으로 성공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잠시 머물게 된 봉필이 수지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두 사람은 은밀히 만남을 갖기로 하는데...

연극 '발칙한 로맨스'는 흔한 듯한 소재에 발칙하면서도 양극한 스토리를 더해 특별한 로맨스를 그려낸다.

코믹뮤지컬 **라바-검은 그림자의 비밀**

일 시 | 1월 10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11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 5천원, S석 4만 4천원
문 의 | (주)하늘이엔티 1688-6675

인기 토종 애니메이션 '라바'를 원작으로 하는 어린이 뮤지컬 '라바-검은 그림자의 비밀' 부산공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뮤지컬 '라바-검은 그림자의 비밀'은 매력 넘치는 두 주인공 '레드'와 '엘로우'가 어린이들과 함께 교감하며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동네편마, 잔소리쟁이 주디, 말쟁쟁이 조르디가 마법에 걸려 하수구 속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스토리를 담았다. 특히 만화적 상상력으로 가득한 입체적인 무대와 마치 살아 꿈틀대는 듯한 캐릭터, 신나는 음악 등을 접목시켜 기존의 어린이 뮤지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뮤지컬 **겨울왕국**

일 시 | 1월 10일 토요일 오후 2:00, 4:30, 11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문 의 | 극단 예일 02-555-0822~3



'렛잇고(Let It Go)' 열풍을 이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원작으로 한 가족뮤지컬 '겨울왕국'.

마법에 걸린 언니를 구하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동생을 통해 자매의 우정과 희생, 진실한 사랑을 그린 퍼포먼스 뮤지컬로, 대중의 폭발적 사랑을 받은 영화 OST와 애니메이션의 화려한 장면을 표현한 마술쇼, 대규모 스케일의 레이져쇼, 무대를 더욱 환상적이고 풍부하게 꾸며주는 버블쇼 등으로 화려한 무대를 선사한다.

최현우의 매직콘서트
더 셉록-553번가의 비밀

일 시 | 1월 16일(금)~3월 15일(일)
부산MBC 삼주아트홀 매직씨어터
문 의 | MBC삼주아트홀 1566-3651,
www.mbcSAMJOOART.COM



2011년 '셜록홈즈1-사라진 마술사'를 시작으로 2012~2013년 '셜록홈즈2-셜록홈즈의 귀환'에 이어 국내 최고의 뮤지컬 제작진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더 완성도 높은 무대로 탄생된 최현우 매직콘서트 '더 셉록-553번가의 비밀'.

셜록 시리즈의 원결판인 이번 무대에서 셉록 홈즈로 분한 최현우는 플라잉 퍼포먼스와는 차원이 다른 '플라잉 매직'에서부터 대형물체를 순식간에 등장시키는 일러전 매직, 관객들과의 심리싸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멘탈 매직까지 최고의 매직무대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연극 **황금연못**

일 시 | 1월 30일 금요일 오후 8:00, 31일 토요일 오후 2:00,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문 의 | ㈜수현재컴퍼니 02-766-6506



1990년대 미국 대표 극작가인 어니스트 톰슨의 처녀작이자 출세작으로, 지난 1979년 브로드웨이 공연으로 화제몰이에 성공했으며, 1981년에는 영화로 제작되어 제54회 아카데미상 남·여우주연상, 각색상을 수상한 연극 '황금연못'.

황금연못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풍경의 호숫가를 배경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은 노부부의 삶과 가족간의 화해와 사랑을 그린 이번 무대에서는 전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은 '꽃보다 할배'의 국민배우 이순재, 신구, 8년 만에 다시 이순재와 부부로 출연하는 국민엄마 나문희, 그리고 소녀의 이미지를 간직한 연극계 베테랑 성병숙이 출연, 명품연기를 선사한다.

•출연/이순재, 신구, 나문희, 성병숙, 이도연, 우미화, 이주원, 홍시로

영화

오래된 극장 2014-1980년대의 기억

일 시 | 2014년 12월 23일(화)-2015년 1월 22일
 (목)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입장료 | 일반 6천원, 경로, 청소년 4천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6080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감동과 여운을 선사하는 추억의 명작들을 다시 감상할 수 있는 시네마테크 부산 '오래된 극장 2014'. 어느 해보다도 다채로운 장르의 명작들을 선보이는 이번 상영전에서는 재기 발랄한 패러디와 아슬아슬한 개그의 코미디 '에어플레인',

'블루스 브라더스', 역사에 휘둘린 나약한 인간의 운명을 그린 서사드라마 '천국의 문', '레즈', '소피의 선택',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는 감동 넘치는 드라마 '황금 연못', '바그다드 카페', '레인맨', '죽은 시인의 사회' 등이 상영된다.

행사

우정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행스케치

일 시 | 1월 5일(월)-2월 9일(월) 매주 월요일 오후 2:00 **스페이스 움**
 입장료 | 1강좌 2만원 (차 포함, 모든 강좌 수강 시 10만원)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프로그램|

- 1강 연필 드로잉 : 연필의 강약을 이용한 드로잉
 - 2강 수성펜 드로잉 : 수성 펜으로 하는 수채화 입문
 - 3강 수성 싸인펜 드로잉
 - 4강 펜 드로잉 : 잉크를 이용한 펜 드로잉과 페인팅
 - 5강 풍경화 사진 그리기-1
 - 6강 풍경화 사진 그리기-2 : 연필, 수성펜 등을 이용한 수채화 완성
- 준비물/수채화 용구, 전문 수채화지

Space UM 맛있는 뷔페식 식사와 와인, 그리고 이야기가 흐르는 하우스 콘서트

일 시 | 1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 움**
 입장료 | 균일 3만원(선착순, 사전 예약 필수)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소프라노 왕기현, 테너 이칠성이 함께하는 소셜타이닝 형태의 콘서트로, 전시 중인 작품의 경매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신춘맞이시마당 제149회 시낭송회

일 시 | 1월 27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총무 010-8915-5172

무지크바움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일 시 | 1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무지크바움에서 2013년부터 매월 진행 중인 클래식과 재즈 마니아를 위한 특색화 프로그램. 1월은 그동안 진행된 프로그램 중에서 베스트를 엄선하여 진행된다.
- 사이먼 래틀, 베를린 필,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 아르보 파르트, 만프레드 아이허, 칩 코리아
 - 티그랑, 그레첸 팔라토, 바비 맥퍼린, 게리버튼
 - 마코토 오조네, 에스보온 스펀스, 라스 다니엘슨
 - 크리스 보티, 에릭 클랩튼, 로비 윌리엄스 등
- 기획 및 진행 / 손명균, 박형석



피아니스트 정문정의 아는 만큼 들리는 음악이야기 2

일 시 | 1월 19일(월)-2월 9일(월) 매주 월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 움**
 입장료 | 1강좌 1만원(차 포함, 4강좌 모두 수강 시 3만 6천원)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미국 루즈벨트대학교 석사, 드폴대학교 최고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루즈벨트대학교 콘체르트 콩쿠르, 전미 교수 협의회(MTNA) 콩쿠르, Jewish Women's Organization 'scholarship 오디션'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정문정의 아는 만큼 들리는 음악이야기 두 번째 강좌.

|프로그램|

슈만의 영원한 사랑 클라라 그리고 브람스 두 천재 바렌보임과 뒤 프레 그들의 사랑과 인생 러시안 음악의 깊이_음악가들의 민족적 자존감 영화 속에서 만난 클래식음악_노잉, 가을소나타, 냉정과 열정사이

전시

BS아트갤러리 개관 기념전
지역 중견작가 27인전

일 시 | 2014년 11월 4일(화)~2015년 1월 10일(토)
BS아트갤러리
문 의 | BS아트갤러리 246-8975

순간의 역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
폴리처상 사진전

일 시 | 12월 5일(금)~2015년 2월 22일(일)
KNN 월석아트홀
입장료 | 일반 1만 2천원/중고생 1만원/초등·유아 8천원
문 의 | KNN 월석아트홀 1577-7600

1942년부터 2014년까지 폴리처상 수상사진 190여점과 폴리처상 수상작가 맥스 테스포의 한국전쟁 사진 30여점 전시.

다큐멘터리 스타일

일 시 | 2014년 12월 9일(화)~2015년 2월 25일(수)
고은사진미술관,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문형태 'After Date' 展

일 시 | 2014년 12월 11(목)~2015년 1월 25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
화려한 색채와 감각적인 표현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작가 문형태 개인전.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기념 전시
부산박물관 소장유물 100選, 珍寶

일 시 | 2014년 12월 11일(목)~2015년 2월 15일(일)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박물관 610-7111

1978년 부산박물관 개관 이후 기증, 구입, 발굴조사 등 꾸준한 수집 활동을 통해 확보된 4만여 점의 유물 가운데 100여 점을 엄선해 선보이는 '부산박물관

관 소장유물 100選'. 통일신라시대 불교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금동보살입상'(국보 제200호), 신라 비로자나불 좌상의 제작 연대를 8세기로 끌어 올린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남석사리호'(국보 제233호), 젊은 시절 강세황의 필적이 돋보이는 '칠태부인경수연도'(보물 제1809호) 등 국보와 보물,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등 약 1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부산의 작고작가전

일 시 | 2014년 12월 12일(금)~2015년 2월 2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구유경 초대전

일 시 | 2014년 12월 16일(화)~2015년 1월 4일(일)
갤러리 예가
문 의 | 갤러리 예가 624-0933,
www.yehga.co.kr

타워갤러리 송년기획
연말연시 선물작품전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2015년 1월 17일(토)
타워갤러리
문 의 | 타워갤러리 464-3939

Asia Independent Art :
개인으로부터 정치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2015년 2월 28일(일)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문 의 | 오픈스페이스 배 055-320-1230

한국, 대만,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등 모두 아시아 6개국 미술 공간이 참여하는 AIA(Asia Independent Arts).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아시아를 연결하고 또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아시아 내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새로운 대화의 방식으로 시도하는 자리로, 개인으로부터 기인하는 세상의 생태와 풍경, 사람과 삶, 욕망과 사회를 읽어낸다.

장징, 장웨이 2인전
Oncoming Generation of China art

일 시 | 2014년 12월 19일(금)~2015년 1월 30일(금)
오픈스페이스 배
문 의 | 오픈스페이스 배 724-5201

2015 理美知 여덟 번째 사진전
부산 재발견 프로젝트#4.
'숨겨진 시간의 조각'

일 시 | 1월 5일(월)~1월 17일(토)
스페이스 움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타워갤러리 특별기획
제15회 현대여성작가전

일 시 | 1월 7일(수)~1월 30일(토)
BIC갤러리, 타워갤러리
문 의 | 타워갤러리 464-3939

김범수 개인전 '움직이는 얼굴'

일 시 | 1월 19일(월)~2월 7일(토)
스페이스 움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서상환 구작전 - 장충열 컬렉션

일 시 | 2014년 12월 23일(화)~2015년 1월 12일(월)
미광화랑
문 의 | 미광화랑 758-2247

과일그림 5인전

일 시 | 1월 13일(화)~2월 8일(일)
갤러리 예가
문 의 | 갤러리 예가 624 0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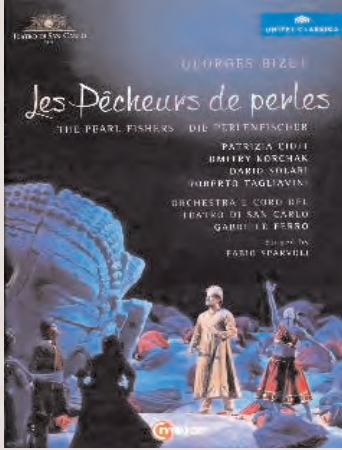
사과, 포도, 석류, 딸기, 모과 등 과일을 소재로 한 극사실 작품 전시.
•참여작가/강민정, 김광한, 김대연, 송은경, 정창기

겨울방학 특집 - 양재영 개인전

일 시 | 1월 28일(수)~2월 26일(목)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키덜트(Kidult)를 통해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전해온 작가 양재영의 조각 작품 전시.

New Album... GM뮤직 제공



❖ 비제: 진주조개잡이 [한글자막]

파트리차 초피(레일라) / 드미트리 코르차(나디르) / 다리오 솔라리(주르가) / 로베르토 탈리아비니(누라바드)
가브리엘레 페로 / 나폴리 테아트로 디 산 카를로

▶ 너무나도 유명한 남성이중창과 로망스를 담은 매력적인 비제의 오페라

37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조르주 비제는 오페라 <카르멘> 단 한 작품만으로도 오페라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하지만 <카르멘>의 너무나도 큰 유명세 때문에 그가 남긴 또 다른 매력적인 오페라인 <진주조개잡이>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동양의 신비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이 고조되었던 19세기 후반에 이를 노린 여러 오페라들이 등장하였는데, 이 작품 역시 그 중 하나로 지금의 스리랑카인 인도 남쪽의 실론 섬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은 이국적인 정취의 작품이다. 비제의 감각적인 선율 감각이 곳곳에서 발휘된 작품으로, 특히 남성이중창의 대명사와 같은 애정곡인 '신비한 사원에서'와 나디르의 감미로운 로망스 '귀에 들리는 그대 음성'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이번 DVD는 2012년 10월 나폴리의 산 카를로 극장에서 있었던 공연실황을 담은 것으로, HD급 화질로 선보이는 이 작품 최초의 영상물이다. 경쾌한 콜로라투라의 매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파트리차 초피와 감미로운 미성의 테너 드미트리 코르차의 활약이 작품의 매력을 한껏 돋보이게 한다.



❖ 말러: 교향곡 1번, 교향곡 2번 [한글자막]

루드밀라 코노발로바(클라라) / 블라디미르 쉬소프(드로셀마이어, 왕자) 외 / 빈 국립발레단 / 폴 코넬리
빈 슈타츠오페라 오케스트라

▶ 파보 예르비와 HR-신포니가 함께 완성한 말러 교향곡 프로젝트의 제1탄

파보 예르비는 2013/14시즌을 마지막으로 8년 동안 역임했던 HR-신포니오케스트라(구 프랑크 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에서 물러났다. 그가 재임기에 완성했던 가장 굵직한 프로젝트의 하나가 영상물로 등장하였다. 예르비와 HR-신포니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라인가우 무지크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말러의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였는데, 그 공연실황들이 C Major를 통해서 차례로 영상물로 출시될 예정이다. 그 첫 출시작인 이번 DVD는 말러의 교향곡 1번과 교향곡 2번 '부활'이 함께 수록되었다. 교향곡 1번은 2012년 8월 23일 비스바덴 쿠퍼하우스의 프리드리히-폰-티에레슈-잘에서 있었던 실황이고, 교향곡 2번은 2010년 6월 26/27일 에버바흐 수도원에서 실황을 편집 수록한 것이다. 특히 교향곡 2번은 거대한 로마네스크 바실리카 건물인 에버바흐 수도원의 광활한 공간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울림이 작품의 장대한 스케일과 종교적인 엄숙함을 더한층 돋보이게 만든다. 교향곡 2번 성악 파트의 텍스트는 물론, 각 교향곡에 대한 파보 예르비의 육성 해설에도 한글자막이 첨부되었다.



❖ 바흐: 오보에, 오보에 다모레 협주곡

곤잘로 X 루이즈(오보에) / 모니카 허깃(바이올린/지휘) / 포틀랜드 바로크 오케스트라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이 오보에를 위한 작품이었다는 학설을 실제 음향으로 구현해 화제를 모았던 곤잘로 X 루이즈가 다시 한번 모니카 허깃이 이끄는 포틀랜드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함께 바흐의 오보에 및 오보에 다모레 협주곡을 들려준다. 바흐의 협주곡을 오보에로 연주한 음반은 이제까지 적지 않게 나왔지만 루이즈 특유의 따뜻하면서도 소박한 음색과 긴 호흡은 언뜻 비교 대상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매력적이다. 모니카 허깃의 바이올린과 호흡을 맞춘 오보에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C단조 역시 소박한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연주다.



❖ 나의 아름다운 책방



로널드 라이스 외 지음, 박상은·이현수 옮김 / 현암사 / 524p / 2만원

법정스릴러의 세계적 거장인 존 그리섬은 1989년에 첫 작품 <타임 투 킬>을 출간했다. 그러나 무명작가가 영세출판사에서 출간한 첫 작품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리섬은 책이 가득 든 트렁크를 들고 떠돌아다니면서 책을 팔았다. 그러던 어느날 아칸소주 블라이드빌에 있는 책방 '뎀 북스토어 인 블라이드빌'의 주인 메리 게이 시플리를 만난다. 메리 게이는 그리섬의 재능을 단박에 알아봤다. <타임 투 킬>을 서점에서 판매했고, 곧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용기를 주었다. 그리섬이 두 번째 작품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의 원고를 보여주자 메리 게이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책은 전미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그리섬은 온라인서점의 물량공세에 밀려 '뎀 북스토어'가 없어질까 봐 걱정이다. "메리 게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책방을 유지할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녀와, 그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나나 다른 신진 작가를 키우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 유명 작가 84명이 풀어놓은 책방 예찬이 책으로 나왔다. 그들이 작가의 꿈을 키울 때부터, 작가로 성공한 뒤에도 계속 애용했던 단골 책방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 경성 엘리트의 만국 유람기



허헌외 지음 / 현실문화 / 416p / 2만 1천 800원

1930년대에는 신문기자 월급이 70원이었고 의사 월급은 100원이었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의 3등석은 110원이었다.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해외여행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 당시에 나라 밖 세상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세계는 어떻게 보였을까. 허헌은 이인·김병로와 함께 조선 3대 변호사로 활약했으며, 보성전문학교 교장과 동아일보 사장대행을 역임했던 조선의 지도자급 인사였다. 1927년 요코하마,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시카고에 도착한 그는 시카고 비치호텔 투숙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룻밤에 무려 100원! 그의 한 달 수입에 버금가는 금액이었다. 미국 대통령과 영국 노동당 당수를 만나고 아일랜드 의회와 법정을 시찰하는 등 거의 외교관이나 다름없었지만, 그는 고급 호텔 가격에 기겁했다. 1930년대 대중잡지 <삼천리>에 실린 조선 엘리트들의 세계여행 기행문을 엮은 책이 나왔다. 그들은 세계여행을 개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거나 정치적 기획을 모색하는데 적극 활용했다. 그들의 세계여행 기록 속에 담긴 열정과 고뇌를 따라가다 보면 조국의 정체성, 계층의 위계가 흔들리던 근대 상황을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음악의 기쁨 3-베토벤에서 현대음악까지



롤랑 마누엘 지음, 이세진 옮김 / 북노마드 / 468쪽p / 1만 6천 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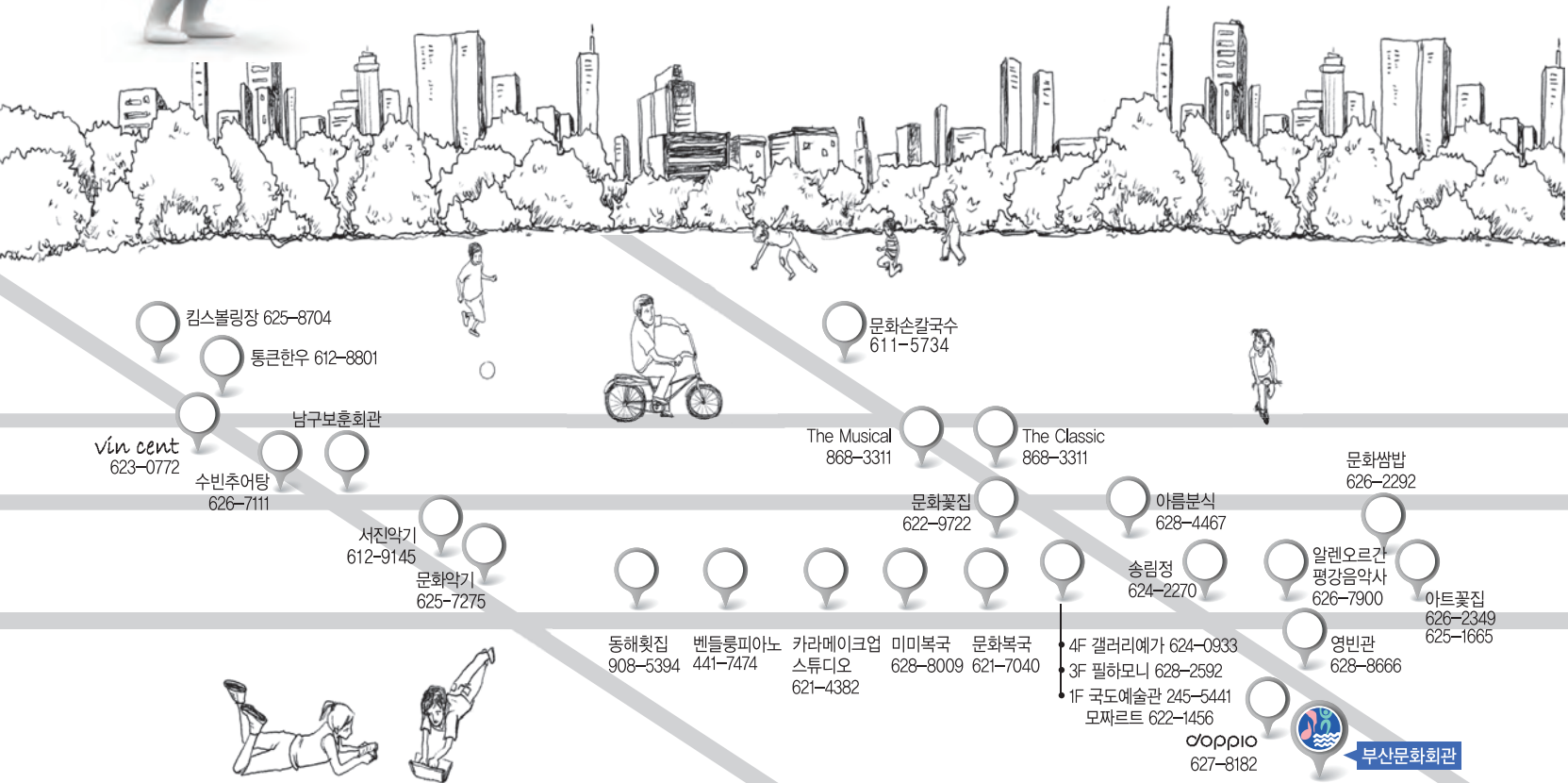
1947년 출간된 클래식 음악의 고전 <음악의 기쁨>은 전공자부터 애호가까지 모두 음악을 듣고 읽는 즐거움을 전하는 정통 가이드북으로 꼽힌다. 이 책을 완역본으로 만나는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이 발간됐다. <음악의 기쁨> 제3권은 '공통언어'로서의 음악언어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음악사를 이끌어온 음악가 개인의 '역양'과 '특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제2권에서 유럽 음악사의 형식과 스타일이 어떻게 발생되고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유럽악파의 음악적 정신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지켜보았다시피 제3권은 음악의 형식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이후의 음악사를 개괄 했다. 모든 나라의 공통언어가 된 음악은 '합의된 양식'이나 '언어의 통일성'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특히나 위대한 음악가가 등장하여 빛을 발할 때는 그 영향력이 더욱 컸다. 독창적인 창작인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반드시 경쟁자들의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 우호적 영향이든 반작용이든, 반드시 효과가 미쳤던 것이다. 심지어 대척점에 있었던 예술가들끼리도 서로의 파동에 영향을 받았다. 이 책에서는 슈베르트, 쇼팽, 슈만, 바그너, 브람스, 포레, 드뷔시 등 베토벤 이후의 음악가들에 초점을 맞춰 대답을 나누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1층 Tel. 051)622-1456</p>		<p>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커피 10%할인 (커피에 한함) Tel. 051-623-0772</p>
<p>Since 1981 philharmony 필하모니</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Tel. 051)626-2592</p>		<p>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식사 5%할인 Tel. 051-624-227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시 평일 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 (회당 2매/조조, 심야, 3D 제외)</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752-9811(공인), 051-747-9812(해운대)</p>



공연시간에 쫓겨 힘든 분들 많으시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20% Discount
센텀점 토다이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가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모차르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가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까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가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Since 1981 팔하모니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가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Discount
연극 연애의 목적
 *쿠폰소지현에 의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가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연극 '예정'자시기극
 *쿠폰소지현에 의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가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연극 '박식한 로맨스'
 *쿠폰소지현에 의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가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연락처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가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CULTURAL SCHEDULE		2015 January 1	
전사실 1.4-3.1 3D문화유산 답사전 문의 : 휴먼머커스(070-7617-4004)			
3	16:00 토요상설무대-재즈밴드 러브레터 소극장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2)	22	19:30 제1164회 MBC 목요일음악회 '행복한 남성들의 즐거운 합창' 대극장 1만원 · 5천원 코랄하우스 남성축제합창단(010-4183-2293)
10	16:00 토요상설무대-해피앙상블 소극장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2)	19:30 부산시립무용단 2015 우리춤 산책 소극장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	
11	17:00 UKO 유스오케스트라 제10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UKO(626-8034)	23	19:30 부산시립교향악단 2015 신년음악회 대극장 2만원 · 1만5천원 · 1만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2	19:00 2015 부산영뮤직 페스티벌 중극장 초대/음악춘추(02-2231-9001) 10:30 2015 악기가족이야기-찌가 찌가 바이올린가족 이야기 15:30 소극장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9:00 남구문화원 오록도 무용단 '낙화유수' 중극장 남구 오록도 무용단(010-8503-4618)	
13	19:00 조미혜 귀국 피아노 독주회 중극장 초대/조미혜(010-9529-9125) 10:30 2015 악기가족이야기-찌가 찌가 바이올린가족 이야기 15:30 소극장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4	11: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음악 디스커버리-러시아' 대극장 3만원 · 2만원 · 1만원/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010-8508-8310) 19:30 갈멜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균일 1만원/갈멜합창단(010-8005-3587) 16:00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소극장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2)
14	19:30 정명훈,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교보 노블리에 신년음악회 대극장 영안임섬(주)(02-720-3933) 19:00 2015 부산영뮤직 페스티벌 중극장 초대/음악춘추(02-2231-9001)	25	17:00 제2회 아미아블 타악기 정기연주회 중극장 초대/아미아블(010-5315-6825)
15	19:00 2015 부산영뮤직 페스티벌 중극장 초대/음악춘추(02-2231-9001) 10:30 2015 악기가족이야기-뿌우 뿌우 나팔가족 이야기 15:30 소극장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7	19:30 2015 제10회 부산국제음악제 '오프닝콘서트-거장의 실내악 1' 대극장 5만원 · 4만원 · 3만원/부산국제음악제(740-5833)
16	19:30 루비셀 사랑나누기 자선모금 2015 신년음악회 대극장 (주)루비셀(010-9172-5552) 19:00 2015 부산영뮤직 페스티벌 중극장 초대/음악춘추(02-2231-9001) 10:30 2015 악기가족이야기-뿌우 뿌우 나팔가족 이야기 15:30 소극장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9	19:30 2015 제10회 부산국제음악제 '신년음악회-명품 협주곡의 세계' 대극장 5만원 · 4만원 · 3만원/부산국제음악제(740-5833) 10:15 미운아기오리 11:20 소극장 키즈쇼(02-6409-6593)
17	15: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빈-베를린 브라스 퀸텟 내한공연' 대극장 3만원 · 2만원 · 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 16:00 토요상설무대-이크택견 소극장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2)	30	19:30 2015 제10회 부산국제음악제 '노부스콰르텟과 피아니스트 윤흥찬' 중극장 부산국제음악제(740-5833)
20	19:3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빈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2015 신년음악회' 대극장 10만원 · 7만원 · 5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19:00 류큐문화선 '류큐의 바람-타마구스구류 교쿠센카이' 중극장 류큐문화선(070-8276-0917)	31	19:30 2015 제10회 부산국제음악제 '거장의 실내악 2' 대극장 부산국제음악제(740-5833) 19:30 U.K.O 오케스트라 피아노 협주곡의 밤 중극장 U.K.O(626-8084) 16:00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소극장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2)

토다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영일 점진 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본행사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기림빌딩 1층
051)622-1466

하니몬키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빌리 210호
051)747-8244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기림빌딩 2층
051)626-2592

연극 연애의 목적

1.8(목)-3.8(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권일 3만원
장 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스티플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극 애정방기사기극

1.8(목)-3.29(일) 오후 5:00, 8:00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권일 3만원
장 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콘서트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진다'

2014.12.23(화)-2015.1.25(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권일 3만 5천원
장 소 : 경성대학교 예나스극장
문의 및 예매 : SM7회선 1600-1602

연극 별작한 로맨스

1.9(금)-4.12(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7:00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권일 3만원
장 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CULTURAL SCHEDULE

2015 January 1

Table with 3 columns: Date, Time, and Event Name/Location. Includes Saturday Regular Stage, 2015 Busan Young Music Festival, Esther Mihye Joh Piano Recital, Kyobo Nobiliaire Concert, 2015 Busan Music Festival, Ruby-Cell, Wine-Berlin Brass Quintet.

Table with 3 columns: Date, Time, and Event Name/Location. Includes Strauss Festival Orchestra Wien, Ship of The Ryukyu, The 1164th MBC Thursday Concerts,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Namgu Oryukdo Dance Company, Busan Symphony Orchestra, The Regular Concert of Carmel Chorus, The 2th Regular Concert of Amiable Percussion, 2015 Busan Music Festival, 2015 Busan Music Festival, 2015 Busan Music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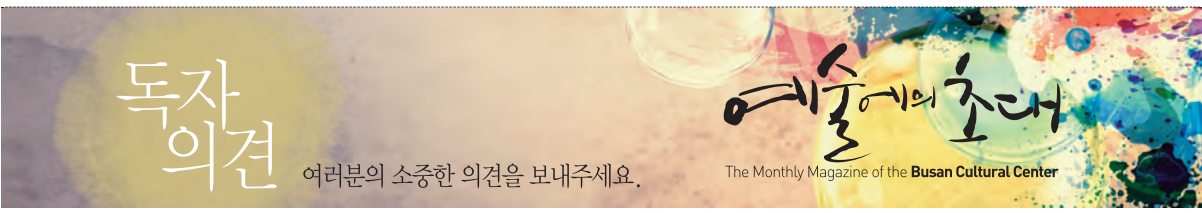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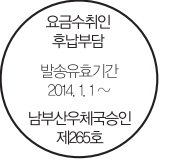
3월 테마여행 신청

보내는 사람

테마여행지 추천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예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Grid for marking answers to question 1, with numbers 1-21 in a 5x5 grid.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2015

악기가 가족 이야기

짜가 짜가,
바이올린가족
이야기

1. 12(월)
~ 13(화)

뿌우 뿌우,
나팔가족
이야기

1. 15(목)
~ 16(금)



- ★ 공연시간 : 오전 10:30 · 오후 3:30
▶ 매일 2회 공연
- ★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 연 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팀

- 입장권 : **균일 2,000원** ● 관람대상 : 어린이 및 학부모
- 예 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 전화 (단체)
- 문 의 : 051) 607-3111~4 (부산시향)
- 주 최 : **부산광역시**

